



#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6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11월 15일

【1】



지난 10월 14일 열린 모교 개교 제53주년 기념식에서 皮千得(左)·金元福 명예교수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커버스토리 18~19면)

## 당신들이 있기에 모교가 빛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가을」을 보내면서 누구나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새 천년. 1천, 2천을 채우고 3천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짚어 보고

계획해야 할 일들이 새삼 깊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건데 우리 민족은 5천년 단군 기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西歷을 따르다 보니 다섯번 천년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잊고 만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민족 자긍의 정신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세계 속에서 민족 自尊을 지켜 나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울대인이 가져야 할 사명감은 새 천년의 좌표와 등불이고 저 더욱 깊이 깨우쳐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4일, 서울대 53회 개교기념 식사에서 李基俊총장은 아심찬 서울대 발전 계획을 천명했다.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교과과정, 학사체계, 연구시스템을 개혁하고 교수 연구지원과 처우개선 및 캠퍼스 디지털화, 환경개선 등을 약속하며, 동아시아지역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개혁적 계획은 총장의 의지와 더불어 대학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의견이 합심하여, 새 천년의

### 21세기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감한 계획의 이면에 한 쪽을 취하면 다른 한 쪽을 잃을 수 있는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준비와 보완으로 훗날의 후회가 방지되기를 바란다.

서울대에 대한 외부의 아픈 말 중에, 한국 최우수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 잠재 역량을 제대로 발현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서울대의 내부 모순 극복이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충고가 있다. 이러한 관점도 참고하여 이번에 공표한 21세기 서울대 발전 계획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 동문의 아쉬움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디자인되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많은 이들이 한국 최고의 지성과 학문의 요람으로는 너무도 삭막한 환경이라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아름답고 깊숙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알맞는 시설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가 기대되는 형편이다.

국가 장래의 지표가 될 사상과 학문의 산실로서 서울대의 발전과 서울대인의 책임 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오늘날이다.

(憲)



느리나무광장

필자가 금강산을 찾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었다. 들던 대로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었다. 발 닿은 곳, 눈 가는 곳에 절경 아닌 곳이 없다. 경이와 찬탄의 한숨소리가 절로 나왔다.

비경과 전설이 어우러져 시간에 쫓기는 방문객의 발길을 잡는 외금강의 상팔담 구룡연 옥류동 계곡과 폭포들,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하기에 앞서 초벌로 온갖 형태를 잡아 보았다는 만물상, 그 기암괴석의 멋부리들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단풍은 지금이 풍악의 절정임을 말해 준다. 혹은 검고 혹은 흰 바위들을 차고 흐르는 옥빛 석간수는 맑기가 거지말갈고 손으로 한 움큼 훑쳐 드리키면 그대로 감로수다.

『금강산이 어떻더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저 『한 번 가서 직접 보고 느끼시라』는 대답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고려인으로 태어난 보람을 이제 서야 맛보게 되다니 국토분단의 현실이 새삼 가슴을 친다.

지난해 11월 금강산 뱃길이 열린 이후 12만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가깝고도 먼 길임을 실감해야 했다. 휴전선 너머 지척에 두고도 동해항에서 공해상을 거쳐 장전항에 닿기까지는 무려 12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지금처럼 어려운 우리 처지에 초호화 유람선은 낭비가 아닌가. 이쯤해서 신작로든 철도든 육로를 열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동이일보 南仲九통일연구소장

1920년대 금강산을 유람하고 「금강산 유기(遊記)」를 쓴 이광수나 1930년대 「산정무한」의 명문을 남긴 정비석은 모두 서울에서 경원선 기차를 타고 철원을 거쳐 고산역이나 장안사역에서 내려 내금강으로 들어갔다. 경원선 복원이 어렵다면 손쉽게는 북쪽의 온정리와 휴전선 남쪽의 고성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도 있다.

금강산 샘플 수입차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태창기업은 제품수송을 위해 원산-온정리간 108km의 철로를 2년여 공사 끝에 97년 4월 완공해 놓았다. 온정리에서 우리쪽 고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24km. 일제 때 조성된 철도노반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철도연결 작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강산 구경은 한결 값싸고 손쉬워진다. 숙식은 고성에서 해결하면서 금강산은 낮에 당일치기로 여러번 다녀올 수 있다. 나아가 이 철로가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경우에는 엄청난 물류통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북한으로서도 큰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철도연결은 남북간에 끊어진 혈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본보 논설위원)

금강산 가는 길

동문칼럼

「속 똑똑이」가 되자

서울대 사람들은 작금 사회의 지배적 그룹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가히 서울대의 나라라 할만 하게도 되었다. 최근 BK21의 결정은 이의 좋은 실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 잘하고」 「착실한」-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론이 끊어오르고, 심지어는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소위 세기말이라 하여 역사의 반추가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話頭를 찾기 위한 논의도 왕성하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높이 쌓은 산보다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곰곰이 생각해 볼일이 너무도 많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하면서도, 일제 시기의 정신적 때를 벗겨 내는 것에 사회가 방향을 아직도 확실하게 잡지 않은 듯 느껴지는데, 관학의 본산으로서 서울대는 경성제국 대학을 단절의 대상이 아닌 선배적 존재로 은근히 섬기면서 일제 잔재의 청산에 오히려 방해가 된 면이 없지 않았는지... 고위 관료의 대부분을 배출하면서 관료주의 망국론이 대두될 정도로 너무도 그 틀에 집착한 것이 아닌지... 지성의 본산이라 자처하면서도, 특히 미국유학 지상주의 속에, 사상 수입상 노릇을 하면서 외래 정신의 詠嘆者나 된 것은 아닌지...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라는 임시 제도의 정점에서, 온 국민의 젊은 날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제도의 창안자가 된 것은 아닌지... 최근 IMF와중의 고급 옷사건, 도지사 뇌물 사건은 물론,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털어 내는 부패 사건 속에, 그것도 피동적인, 어쩔 수 없었다는 교활함까지 갖춘, 피고인석에 왜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것인지...

오죽하면 21세기 한국사회의 제1번 과제가 반부패 투명 사회를 향한 「탈출」을 꼽겠는가!

정권 교체기마다 총리를 배출하면서, 시험에도 열심히 붙어, 권력·금력의 머슴 역할에 충실하고 권력·금력의 부스러기 줍는 일에 능한, 한

가운데 있으면서 한가운데 있지 않은, 머리를 굴리는 일에 그저 동원되는, 「출세 잘하는」 아 파트 열쇠의 주인공의 모습으로는 이젠 좀 지겹다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두서없이 지면이 다 되었다. 바로 어제 같은 신입생 시절, 따져 보니 시간이 꽤나 흘렀건만,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기억이 있다. 남학생이면서도 별나게(?) 취미가 「빨래」임을 밝힌 한 동기생의 이야기이다. 빨래를 하면 더러워졌던 옷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잡념도 없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순수한 상태로 되어 빨래를 끝내고 심호흡이라도 할라치면 상쾌하기까지 한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이었다. 주로 저녁식사후 행하게 되는데 마치고 나면 보름달이 켜명 그렇하니 떠 있는 수도 있고, 별이 총총한 밤일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럴 때 그 서늘한 공기를 마시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라고 했었다. 그때에는 그저 별난 친구의 별난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당면 과제가 「부패 청산」이 되고 보니, 새삼 그 「빨래」며 「맑은 머리」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가 마셨던 그 「서늘한 공기」의 정서가 소중해지고 그 상징하는 바에 경외심을 표하게 된다.

21세기에는 「서울대 사람」하면 『아, 그들은 옳고 바른 사람들!』 소리를 듣는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이제까지가 「겉 똑똑이」로서의 제1장이었다면 「속 똑똑이」로서의 제2장이어야만 「국립」서울대는 그 존재 이유를 가질 것이다. 모름지기 빨래를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李大亨

(65년 文理大卒·71년 工大卒·심재건축 대표) 흥사단 이사장



쌍용정유 지부

이공계 출신 47명 뿔뿔 뿔쳐

「신입사원 환영회」 등 연3회 정기모임

글 : 南震鉉(82년 師大卒·쌍용정유 품질관리실 부장)간사

쌍용정유는 1976년 이란 국영회사와의 합작회사인 한이석유주식회사로 출발했으며, 81년부터 상업가동을 시작, 지금은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와의 합작으로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유 수급은 물론 산유국 및 일본 등에 석유류 제품을 역수출하고 있다. 특히 쌍용정유는 무엇보다 타 정유회사에 비해 가장 높은 매출액대비 이익률을 자랑하는 굴지의 기업이다.

8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쌍용정유지부에는 47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타 동문들에 비해 수적으로도 적지 않으며, 李奎辰(기술연구소 부소장·63년 師大卒)동문을 비롯하여 宋錫勳(유통블렌딩 공장장·65년 文理大卒)·李鍾鎭(인사담당이사·71년 法大卒)·呂革鍾(공장장·73년 工大卒)·李勇熙(정유공정이사·75년 工大卒)·河成基(분해공정

이사·75년 工大卒)동문 등 공장내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동문들로 쌍용정유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모교 출신들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90년대 이후의 학번들이 전체의 15%(7명)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쌍용정유지부는 신입사원 환영회와 동문 송년의 밤, 그리고 현장 실습생 환영회 등 연 3회의 정기적인 행사를 갖고 있다. 정유 자체의 이미지와 함께 쌍용정유의 동문들중 90%가 넘는 43명이 이공계 출신인 만큼 딱딱함을 연상하게 되지만 해마다 열리는 동문 송년의 밤 행사에는 전 동문 가족들이 참가하여 가족장기 자랑과 「대화의 장」을 펼쳐 전체가 화목한 한가족같은 따스함을 느끼고, 단순한 회사의 동문 모임이 아닌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함께 하는 동문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97년 IMF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쌍용정유도 위기속에 한때 침체된 분위기에서 지내기도 했었다. 그래서인지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동문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현재는 공식적인 활동은 당분간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문들의 끊임없는 의지와 당장의 앞 일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진취성,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동문 개개인의 노

력 이 IMF를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됐다.

특히 동문의 미래인 젊은 동문들을 중심으

로 비공식적인 모임들을 가지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등 다시 한번 예전의 활발함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는 詩句가 있다.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슴속에 묻어 보았음직한 말이다. 이제 사회인이 된 우리 동문들은 그 말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지부 못지 않게 그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는 이들, 바로 쌍용정유지부의 동문들이다.





부평문화재단 李道卿 이사장

## 컴퓨터 귀재 李燦振이 아들·차녀도 동문

『옛날 거지 父子가 넓은 논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건너편 큰 부잣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저런 걱정은 없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느긋하게 웃으며 “그게 다 애비 덕이다”라고 하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린 학생들과 자식들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재산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제 집에는 금은 보석은 없지만 남을 위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저의 가족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평생을 장학사업에 몸바쳐온 李道卿(63년 農大卒)부평문화재단 이사장이 들려준 이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기자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다.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아 진학한 농과대학에서 조금은 피차 학생으로 통했다는 李동문은 모교 재학시절에도 광운공업고등학교 수학교사 등 여러 사회경험을 통해 같은 또래의 학생들 보다는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래서 A학점의 모범생들도 꺼리는 국가공무원 4급(현재 7급에 해당)시험에 덜컥 응시해 합격하는 과란을 일으키

기도 했다고.

李동문의 이런 자신감은 비록 말단이었지만 농림부라는 중앙기관에 배치되는 행운을 주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李동문의 젊고 맑은 혈기가 그대로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상사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다 결국 서른세살에 멋지게(?) 사표를 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어렵게 작은 구멍가게를 마련, 장사를 시작한 李동문은 「힘들더라도 남을 도우며 살자」고 다짐했던 학생시절 자신의 작은 꿈을 기억해냈다. 李동문은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당시 어려운 초등학교 12명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벌써 20년전의 일로, 이후 중·고등학생으로 수혜자를 점차 늘려 현재는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내에 2천만원을 출연해 기금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번은 집안이 어려운 학생에게 고등학교 3년동안 장학금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졸업 때는 그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학생이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6년동안 전화 한번 없던 그 학생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더

군요. 그때는 정말 섭섭했습니다. 굳이 보답을 바라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정마저 값싸게 끊어버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덧붙여 李동문은 총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모교 학생들도 선배들이 어렵게 마련한 장학금이니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李동문은 특히 자신의 뜻을 아들 李燦振(89년 工大卒·드림위즈 사장)동문이 이어주길 바라며 공동명의로 장학기금을 출연했다고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일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다는 李동문은 며느리인 탤런트 金熙愛씨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모교와의 인연이 남다른 李동문 가족은 숙대출신의 장녀 善英양이 지난 6월까지 모교 閔相基교수의 조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차녀 賢英양은 올해 2월 모교 사범대를 졸업해 현재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美)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李道卿동문 한명 건너 李賢英·李燦振동문.

## 건강을 지킵시다

## 발기부전 - 비아그라 최고

崔健赫(74년 藥大卒)아산약국 대표



현재 우리나라에는 2백만명 이상의 남성이 발기부전증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특히 40~70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많은 남성들이 고개숙인 남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를 나홀로 고민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기부전은 심리적 원인이나 신체적 원인 또는 이 두가지가 복합되어 발생한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35세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에 많다.

중노년층에 많은 신체적 원인은 대부분이 혈관질환이 주류를 이루며 이에 따라 음경으로 가는 혈액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신경계질환, 고혈압, 전립선질환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과도한 흡연과 음주, 교통사고, 산업재해, 신장질환 등도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발기부전에 또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약물이다. 각종 진정제나 수면제, 이뇨제, 일부 위궤양 약, 진통제, 고혈압 약, 체중조절 약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발기부전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수술, 상담치료 등 다양하며 그중 대표적인 약물요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구용 약품으로 미국 밥돌 상원의원이 자신의 체험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비아그라」가 대표적이다. 먹는 약이라 사용하기가 편리하며 효과도 높다. 성관계 1시간전에 복용하면 음경으로 혈액이 유입되는 것을 도와 자연스럽게 발기된다.

둘째 자가주사약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카버젝트」가 대표적이다. 성관계 직전에 자신의 음경해면체에 주사하면 5~20분 안에 발기되고, 30분~1시간 정도 유지된다.

셋째 요도주입약물로서 요도에 약물을 주입하여 발기를 일으키도록 하며 「뮤즈」가 대표적이다. 이 약은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요도 주입식이므로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약효성분은 「카버젝트」와 동일하다.

이상의 약물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남성들은 발기부전을 치료함으로써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자신뿐 아니라 아내, 나아가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산약국 : 547-7826>

## 추억의窓

師大人의 요람 「청량대」그리워  
춥불켜놓고 들던 名士 초청강연

李鳳翼(60년 師大卒)청주교대 교수

대학을 졸업한 지 어언 40년, 이제 정년을 3년 앞둔 시점에서 대학생활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다. 정들었던 청량대, 붉은 벽돌 교사, 노란 개나리가 만발했던 교정은 사라지고 아파트단지가 된지도 오래됐다. 대학생활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있을 뿐 현실적인 상징물은 찾을 길 없으니 애잔할 뿐이다. 그나마 동송동 대학본부건물은 보존됐으나 사범대학 옛 터는 어디로 갔는가? 師大人들의 영원한 요람이었던 청량대도 보존하지 못했으니 선배로서, 동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56년 입학 당시 용두동, 청량리 일대는 초라한 가옥들이 엮여있고, 대한극장 앞길도 황토길이었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개발이 안된 용두동에서 보낸 대학 4년과 대학원 2년의 세월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였다. 꿈과 낭만, 열정과 패기, 그리고 비판의식이 충만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교육학부 교수님들은 한국 교육학계의 중추였던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가르치셨다. 학생 자체 세미나와 연구 발표도 활발했는데, 당시 王學洙교려대 교수 초청 강연 때는 촛불을 켜놓고 진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의 열기와 호응은 대단했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 속에서 공부한 탓에 우리 동기생 중에는 대학에 몸담은 사람도 많았고, 중등교육계에서도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학생복지시설도 없었고, 축

제도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간혹 영화관을 찾았다. 당시 「애수」, 「로마의 휴일」 등의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었음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할 수 있다.

외부 명사 초청강연도 인상적이었다. 洪鍾仁조선일보 주필, 李亨根육군대장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李亨根대장은 전역하면 가까이 사범대학 수위를 하겠다고 선언하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었다.

우리는 높은 금지와 사명감을 갖고 師道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었다. 이러한 전통과 풍토는 선배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선배배 모두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이를 지키고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힘들고 험난하지만 이보다 더 보람있고 존귀한 일은 없다. 영리와 명리에 의연했던 스승과 선배들의 거룩한 얼을 오늘도 되새기면서 아련한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는 나는 잔잔한 희열에 넘친다.



가운데줄 좌로부터 첫 번째 필자

## 30주년 기념 「친목등산대회」 성황

### 3천여명 참석, 관악산 청결운동도 펼쳐

본회는 지난 10월 17일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모교 李基俊총장, 동창회 임원들과 모교 교직원을 비롯해 3천여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산 청결운동을 겸한 개교 53주년 및 동창회 창립 30주년 기념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세계적인 성악가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의 「Best Music Collection」 CD를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등반을 시작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는 그린스카우트 및 明春재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지부동창회 吳熙弼회장의 그린스카우트 선서로 시작했다.

金在淳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서울대인이 가는길, 가야할 길은 선비의 길이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지럽고, 각박하더라도 무엇에든 현혹 당하지 말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길을 자신있게 걸어 가자」고 역설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제 모교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해야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의 행사 개요 및 협찬자 안내에 이어진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하는 속에서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金眞卿(생활과학대 4학년)양의 사회로 진행됐다.

모교 사회대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풍물패」 사물놀이의 흥겨운 장단에 덩실덩실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는 등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동문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간호대학, 경영대학원, 환경대학원, 신문대학원, 당진지부, 부천지부, 대전·충남지부, 수원지부, 수의과 임상동문회, 치대 22회, 공대 61산악회, 구법산악회, 치불회 등에 소속된 동문들이 단체로 참석해 강한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崔主鎬 명예회장, 李姬鎬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한 4백여명의 동문들이 협찬해주었다. (협찬자 명단 6~7면 참조)

특히 동문가족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金泰球(63년 商大卒·대우자동차 사장)동문이 협찬한 자동차(마티즈)의 행운은 琴秉

大(55년 法大卒)제일감정평가법인 평가과장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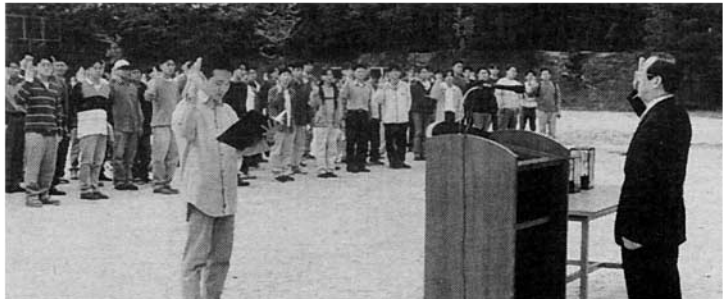
또한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명예회장)동문이 협찬한 컴퓨터의 행운은 趙炳春(63년 農大卒)동문에게, 尹世榮(61년 法大卒·SBS회장)동문이

협찬한 칼라TV는 金容吉(61년 師大卒)경기대 박물관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한편 행사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수목원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행사장 주변에서 청결운동을 펼쳤다.

## 제6회 총동창회장배

### 「고교동문 야구대회」 열려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6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鄭淸喜대회운영위원장, 申仁湜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42개팀은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鄭宗澤상임부회장은 金在淳회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신체

와 건전한 정신을 키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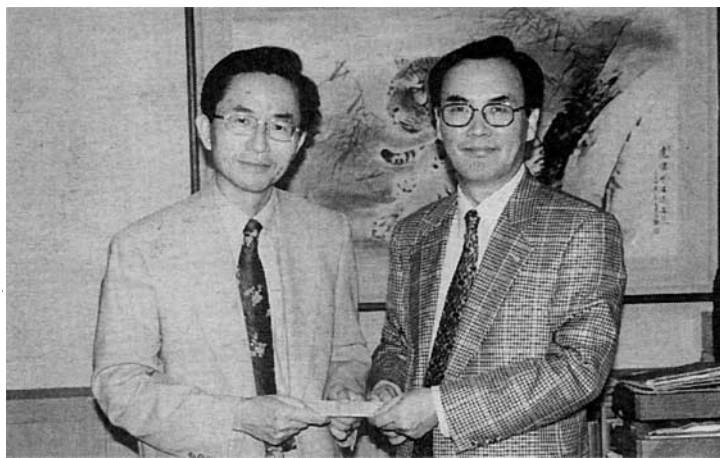
이어 선수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鄭상임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10월 27일 치러진 결승전 경기에서 서울과학교 출신팀이 우승, 경남고 출신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모교 야구부 申仁湜지도교수가 본회 金在淳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李世震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變)

## 李鍾基동문 특지장학금 1억원 출연

### “영·호남지역 화합의 계기되기를”



李鍾基(左)사장이 李世震사무총장에게 출연금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1일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사장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을 본회에 출연했다.

이날 출연한 李鍾基특지장학금은 경영대 및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재학생중 1차년도는 전주고·경북고 출신에게, 2차년도는 광주일고·부산고 출신에게 연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수혜대상자 영·호남 학생들의 교류를 계기로, 그동안 기성세대에 의해 심화되어 온 지역갈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특지장학회 기금을 본회에 쾌적한

전주고 출신인 李鍾基동문의 특지장학금 출연의辯은 다음과 같다.

어느 존경하는 스승님이 술좌석에서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니 그것은 지역감정이다. 내가 만난 어떠한 지식인도 그 뛰어난 명성에 관계없이 지역감정의 벽을 넘어 냉철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참으로 국력의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여러 경우에서, 스승님의 진단이 구구절절이 옳은 것

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보도, 보수도, 개혁도 다 공허한 깃발이며 참다운 응집력을 가지고 세력화 될 수 없다는데 절망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악마의 주술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엘리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심저에 지역의 편견이 용틀고 앉아, 價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엄중히 자문해야 합니다.

東西의 얼음벽을 용광로에 녹이고 東은 西를 향하여, 西는 東을 향하여 이해와 관용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기득권도, 박탈감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국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작은 특지장학금을 東과 西의 차세대 엘리트들에게 우정의 가교를 맺는데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李鍾基특지장학금을 첫 해는 전주고와 경북고를 졸업한 모교(경영대+경제학부) 후배들 중에서, 다음 해에는 광주일고와 부산고를 졸업한 후배들 중에서 선별해 지급했으면 합니다.

작은 인연으로 우정의 계기를 확대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악마의 주술을 부수는 아름다운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나의 작은 희망입니다.

## 特志 및 基金獎學會 出捐同門과 篤志家 不忘錄

특지장학회는 1구좌에 5천만원을 출연받아서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출연자가 직접 선정한 장학생에게 출연자의 명의로 영구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 출연자 永世不忘錄

특지 및 기금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가족 친목 등산대회」 한마당



3천여명의 동문 가족이 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치고 기념CD를 받았다.



사회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행군을 시작했다.



교내를 벗어나 관악산 등산로에 접어들며 선후배 가족과 인사를 나누었다.



차례차례 줄지어 맛있는 점심과 음료 등을 받았다.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통해 환경파수꾼의 임무를 다짐했다.



해마다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어린이들의 춤솜씨.



언제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품추첨 순서.



「풍물패」가 선보인 흥겨운 우리가락.

## 미술작품

申 璋 湜 作



「금강산-생명력(만물상)」 162×130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릭, 1999.

(작가 약력)

- △82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84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9~99년 개인전 17회
- △89년 제8회 미술대전 대상
- △91년 제1회 사포르 국제 판화 비엔날레 후원자상
- △93년 한·일 현대 판화 교류전
- △98년 한국현대 판화 30년
- △99년 풍유금강-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
- △현재 국민대 예술대 미술학부 교수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琴秉大동문.

## 등산대회 협찬 동문

지난 10월 17일 농생대 수목원에서 거행된 진목등산대회는 가을비가 측측이 내리는 가운데에도 3천여명의 동문가족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고 참가자들은 풍성한 가을을 한껏 만끽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진목등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위해 협찬금품을 출연해주신 각계 동문들을 소개한다.

金在淳



52년 商大卒·本會會長  
샘터사 이사장  
직지심경 손수건 50SET

金竣成



42년 商大卒·本會顧問  
이수화학 회장  
일금 30만원

崔主鎬



39년 農大卒·本會名譽會長  
前우성그룹 회장  
일금 1백만원

李基俊



61년 工大卒·本會名譽會長  
모교 총장  
페이퍼매직 1백개

鄭宗澤



58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  
충청대 학장  
옥돌버루 2SET

金道昶



47년 法大卒·冠岳會理事  
변호사  
일금 30만원

池憲澤



47년 齒大卒·齒大同窓會長  
지현백치과의원장  
일금 3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식용유 선물 20SET

張禮準



49년 商大卒·商大同窓會長  
(사)상우회 회장  
일금 30만원

李姬鎬



50년 師大卒  
대통령 부인  
금일봉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LG그룹 고문  
MP CD플레이어 2대

白樂院



51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인제대 총장  
일금 50만원

林光洙



52년 工大卒·工大同窓會長  
임광토건 회장  
일금 1백만원

李聖秀



52년 師大卒·本會副會長  
정책평가연구회 회장  
일금 5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동아계약 회장  
음료수 3천5백캔

李達雨



5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코트렐 회장  
일금 50만원

尹勤煥



54년 農大卒·農大同窓會長  
前농업진흥공사 이사장  
일금 20만원

朴晟容



50년 文理大入·本會副會長  
금호그룹 명예회장  
광 왕복항공권 2대

方孝宣



55년 文理大卒·本會監事  
세무법인 성광사 회장  
일금 30만원

李信子



55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  
갤러리 우덕 대표  
일금 30만원

李奭熙



55년 法大卒·法大同窓會長  
(주)대우 상임고문  
일금 50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전자 회장  
일금 50만원

閔丙峻



56년 師大卒·本會副會長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일금 50만원

李乃均



56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삼화도기 대표  
도자기 20SET

宋斗灝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중앙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일금 50만원

韓斗鎭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한국병원 원장  
일금 50만원

李龍兌



57년 文理大卒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컴퓨터 1대

李鎔華



57년 文理大卒  
세모유람선 사장  
유람선이용권 20매

趙南煜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부토건 회장  
일금 50만원

崔泰祥



57년 師大卒·師大同窓會長  
前경복고교 교장  
일금 20만원

元容勳



57년 商大卒  
대림통상 대표  
압력솔 3개

李吉女



57년 醫大卒·醫大同窓會長  
길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李晟遠



58년 工大卒·冠岳會理事  
청소노동자재단 이사장  
일금 3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서광 회장  
티셔츠 10벌

全錫洪



58년 文理大卒·環大院同窓會長  
국회의원  
일금 20만원

崔永喆



58년 文理大卒·文理大同窓會長  
통일번영연구원 이사장  
일금 20만원

許浚



59년 法大卒·冠岳會理事  
前대우증권 회장  
일금 30만원

李丙俊



59년 商大卒·在美同窓會名譽會長  
부산파이프아메리카 회장  
일금 1백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本會副會長  
일동제약 회장  
공기청정기 2대

李義淑



60년 家政大卒·家政大同窓會長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장  
일금 50만원

金宣中



60년 商大卒  
(주)진로 사장  
소주 2천팩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제일제당그룹 회장  
제일제당선물 30SET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SBS 회장  
29인치 TV 1대

李相禹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서강대 교수  
일금 20만원

金玆洙



61년 商大卒  
LG EDS 사장  
지갑·벨트선물 20SET

卞圭七



62년 法大卒·本會副會長  
LG텔레콤 회장  
LG상품권 3매

吳仁錫



62년 法大卒·本會副會長  
在美同窓會長  
일금 1백만원

李佑宰



62년 獸醫大卒·獸醫大同窓會長  
국회의원  
일금 20만원

姜敏求



62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  
유성개발 회장  
수저선물 10SET

金鮮東



63년 工大卒  
쌍용정유 부회장  
주유권 10매

洪性大



63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일금 1백만원

玄明官



63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성물산 부회장  
전자렌지 2대

金泰球



63년 商大卒  
대우자동차 사장  
마티즈 1대

朴炳潤



63년 商大卒·本會副會長  
한국일보 부회장  
일금 30만원

孫吉丞



63년 商大卒·本會副會長  
SK그룹 회장  
일금 1백만원

宋丙洛



63년 商大卒  
모교 부총장  
페이퍼매직 1백개

禹德昶



63년 商大卒·經大院同窓會長  
前쌍용그룹 부회장  
일금 50만원

劉常夫



64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포항제철 회장  
일금 1백만원

李廣祐



64년 工大卒  
롯데햄우유 상무  
롯데햄선물 20SET

李典九



64년 農大卒  
뉴욕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일금 50만원

李濟薰



64년 文理大卒·新大院同窓會長  
중앙일보 부사장  
일금 30만원

韓光玉



60년 文理大入·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20만원

尹美子



64년 美大卒·冠岳會理事  
규수당 대표  
씨발리지 숙박권 3매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한나라당 부총재  
일금 2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대림성모병원장  
일금 50만원

金昇政



64년 商大卒  
(주)SK 대표  
주유권 10매

|                                                                                                                                                                   |                                                                                                                                                                |                                                                                                                                                                     |                                                                                                                                                                        |                                                                                                                                                                    |                                                                                                                                                                   |                                                                                                                                                                       |
|-------------------------------------------------------------------------------------------------------------------------------------------------------------------|----------------------------------------------------------------------------------------------------------------------------------------------------------------|---------------------------------------------------------------------------------------------------------------------------------------------------------------------|------------------------------------------------------------------------------------------------------------------------------------------------------------------------|--------------------------------------------------------------------------------------------------------------------------------------------------------------------|-------------------------------------------------------------------------------------------------------------------------------------------------------------------|-----------------------------------------------------------------------------------------------------------------------------------------------------------------------|
| <div>尹永錫</div> <div></div> <div>64년 商大卒·本會副會長<br/>한국중공업 사장<br/>일금 1백만원</div>     | <div>李世馥</div> <div></div> <div>65년 法大卒<br/>나드리화장품 사장<br/>화장품 20SET</div>     | <div>朴容晟</div> <div></div> <div>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br/>OB맥주 회장<br/>맥주1천2백켤, 소주2천켤</div> | <div>裴錫彩</div> <div></div> <div>65년 商大卒·ROTC同門會長<br/>'동양텔레콤(주)' 대표<br/>일금 50만원</div> | <div>朴英俊</div> <div></div> <div>66년 商大卒·冠岳會監事<br/>박영준회계사무소 대표<br/>일금 30만원</div> | <div>李祥義</div> <div></div> <div>66년 藥大卒·本會副會長<br/>국회의원<br/>일금 20만원</div>       | <div>金忠煥</div> <div></div> <div>67년 商大卒<br/>한국전자 사장<br/>전자오르간 1대</div>             |
| <div>金基炳</div> <div></div> <div>67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br/>롯데관광 회장<br/>제주도 여행권 1매</div>  | <div>朴魯斌</div> <div></div> <div>69년 師大卒<br/>삼성에버랜드 전무<br/>에버랜드이용권 50매</div>   | <div>金一燮</div> <div></div> <div>69년 商大卒·冠岳會理事<br/>삼일회계법인 부회장<br/>일금 20만원</div>     | <div>尹洪九</div> <div></div> <div>70년 工大卒<br/>동양매직 사장<br/>전자렌지 2대</div>                | <div>玄在賢</div> <div></div> <div>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br/>동양그룹 회장<br/>카라멜 1천개</div>     | <div>金閔鍾</div> <div></div> <div>71년 藥大卒·冠賀會會長<br/>(주)마성상사 대표<br/>일금 30만원</div> | <div>李大榮</div> <div></div> <div>72년 商大卒<br/>금강제화 대표<br/>금강제화상품권 5매</div>           |
| <div>魏駿燦</div> <div></div> <div>72년 敎大院卒·敎大院同窓會長<br/>장항고교 교장<br/>일금 30만원</div>   | <div>元世勳</div> <div></div> <div>74년 法大卒<br/>서울시 행정관리국장<br/>맥주 10BOX</div>     | <div>崔炳敏</div> <div></div> <div>75년 文理大卒<br/>대한펄프 대표<br/>물티슈 1천3백50개</div>         | <div>崔鉉烈</div> <div></div> <div>3기 최고경영자과정·冠岳會理事<br/>엔케이그룹 회장<br/>일금 30만원</div>      | <div>趙亮鎬</div> <div></div> <div>29기 최고경영자과정<br/>대한항공 회장<br/>제주도 항공권 2매</div>    | <div>俞相玉</div> <div></div> <div>39기 최고경영자과정<br/>코리아나화장품 사장<br/>화장품 10SET</div> | <div>鄭八道</div> <div></div> <div>1기 최고산업전략과정·AIP同窓會長<br/>(주)홍인 회장<br/>일금 50만원</div> |
| <div>高貴先</div> <div></div> <div>19기 최고산업전략과정<br/>(주)재원조이스 대표<br/>믹서기 20대</div> | <div>朴成喆</div> <div></div> <div>24기 국가정책과정<br/>(주)신원 대표<br/>의류 교환권 3매</div> | <div>金相賢</div> <div></div> <div>27기 국가정책과정·ACAD同窓會長<br/>국회의원<br/>일금 20만원</div>   | <div>朴英淑</div> <div></div> <div>3기 가정간호수습과정<br/>CHCN同窓會長<br/>일금 20만원</div>         | <div>티셔츠 20벌<br/>(총재 및 明)<br/>그린캐밀리온동원합</div>                                                                                                                      | <div>이금 30만원<br/>(회장 楊銀淑)<br/>간호대학동창회</div>                                                                                                                       | <div>이금 20만원<br/>(회장 李南洙)<br/>음악대학동창회</div>                                                                                                                           |
|                                                                                                                                                                   |                                                                                                                                                                |                                                                                                                                                                     |                                                                                                                                                                        | <div>이금 20만원<br/>(회장 李成煥)<br/>수의과임상동문회</div>                                                                                                                       | <div>이금 30만원<br/>(회장 李禮植)<br/>약학대학동창회</div>                                                                                                                       |                                                                                                                                                                       |

감사합니다

權相澈 35년 師大卒  
宋仁相 35년 商大卒  
權彝赫 47년 醫大卒  
金周煥 47년 齒大卒  
朴漢相 48년 文理大卒  
安哲浩 49년 工大卒  
趙弼濟 50년 工大卒  
尹相澈 51년 藥大卒  
金許男 52년 法大卒  
金永鎔 53년 藥大卒  
金德洙 55년 工大卒  
尹大燮 55년 農大卒  
文貞奎 56년 工大卒  
成百詮 56년 工大卒  
申東秀 56년 工大卒  
張明洙 56년 工大卒  
金龍煥 56년 法大卒  
朴鉉兌 56년 法大卒  
裴命仁 56년 法大卒  
張忠植 52년 師大入  
高炳佑 56년 商大卒  
金範來 56년 獸醫大卒  
金昌植 57년 工大卒  
徐廷旭 57년 工大卒  
宋基德 57년 工大卒  
鄭然世 57년 工大卒  
咸承浩 57년 工大卒  
金榮鎭 57년 農大卒  
朴孟浩 57년 文理大卒  
李大淳 57년 法大卒  
李會昌 57년 法大卒  
朴贊文 57년 商大卒  
林秉泰 57년 商大卒  
片度權 58년 工大卒  
魚允培 58년 法大卒  
李炳漸 58년 法大卒  
李仁子 59년 家政大卒  
李宗勳 59년 工大卒  
權英子 59년 文理大卒  
申允植 59년 文理大卒  
朴哲根 59년 法大卒  
潘成雨 59년 法大卒

李璆教 59년 師大卒  
申復泳 59년 商大卒  
池昌壽 59년 商大卒  
高建 60년 文理大卒  
高宗鎭 60년 法大卒  
宋榮壽 60년 法大卒  
李昌遠 60년 法大卒  
宋達鎬 60년 商大卒  
許南珏 60년 商大卒  
韓基碇 60년 獸醫大卒  
金讚淑 60년 齒大卒  
金圭甲 61년 工大卒  
金政根 61년 工大卒  
金炯璧 61년 工大卒  
南正鉉 61년 工大卒  
徐立圭 61년 工大卒  
申俊熙 61년 文理大卒  
李壽成 61년 法大卒  
金東吉 61년 師大卒  
李景載 61년 商大卒  
李洙彬 61년 商大卒  
全哲煥 61년 商大卒  
尹炳和 62년 工大卒  
李喆雨 62년 工大卒  
韓鎔鎬 62년 工大卒  
金成勳 62년 農大卒  
朴永寅 62년 農大卒  
姜洙憲 62년 商大卒  
裴茂基 62년 商大卒  
李萬秀 62년 商大卒  
金柱鎔 63년 工大卒  
吳城煥 63년 工大卒  
趙昌杰 63년 工大卒  
朴英珠 63년 商大卒  
崔洙秉 63년 商大卒  
河權益 63년 醫大卒  
許永燮 64년 工大卒  
金璟林 64년 法大卒  
金榮秀 64년 法大卒  
金榮一 64년 法大卒  
金振晚 64년 法大卒  
李大公 64년 法大卒  
崔相泰 64년 法大卒  
朴英錫 64년 師大卒

金振範 64년 商大卒  
裴昶模 64년 商大卒  
孫炳斗 64년 商大卒  
魚準 64년 商大卒  
孫宣奎 64년 行大院卒

卞在國 65년 工大卒  
沈玉鎭 65년 工大卒  
李梓旭 65년 工大卒  
李宗湖 65년 工大卒  
李商龍 65년 農大卒

張正植 65년 農大卒  
朴東勳 65년 文理大卒  
邊炯 65년 文理大卒  
趙容直 65년 文理大卒  
崔桓 65년 文理大卒  
南進 65년 法大卒  
安繁一 65년 法大卒  
李武龍 65년 法大卒  
李泰昌 65년 法大卒  
李千洙 65년 法大卒  
崔容準 65년 師大卒  
朴魯英 65년 商大卒  
李大遠 65년 商大卒  
李壽益 65년 商大卒  
李永瑞 65년 商大卒  
李龍彦 65년 商大卒  
權博 65년 藥大卒  
金炳斗 65년 敎大院卒  
許京萬 65년 司大院卒  
金聖中 66년 工大卒  
申鉉周 66년 工大卒  
吳明 66년 工大卒  
成培永 66년 農大卒  
金明子 66년 文理大卒  
權燦久 66년 法大卒  
金慶漢 66년 法大卒  
鄭輝衛 66년 法大卒  
金榮石 66년 商大卒  
沈大平 66년 商大卒  
李相潤 66년 商大卒  
房極允 66년 行大院卒  
金榮大 67년 商大卒  
盧敬燮 67년 商大卒  
李炳圭 67년 商大卒  
李燦河 67년 經大院卒  
趙武濟 67년 司大院卒  
李瑞炯 68년 工大卒  
韓竣皓 68년 農大卒  
許瑄 68년 文理大卒  
金相應 64년 文理大入  
金日權 68년 法大卒  
朴舜用 68년 法大卒  
姜文昌 68년 商大卒  
李淳學 68년 商大卒

朴勝彬 69년 工大卒  
李富榮 69년 文理大卒  
車興奉 69년 文理大卒  
姜萬洙 69년 法大卒  
金鍾煥 69년 法大卒  
李根植 69년 法大卒  
康奉均 69년 商大卒  
金弘基 69년 商大卒  
咸鍾漢 70년 農大卒  
金大中 70년 商大卒  
金任植 70년 經大院卒  
姜昌五 71년 工大卒  
李相哲 71년 工大卒  
宋光洙 71년 法大卒  
俞炳武 71년 商大卒  
金秀雄 71년 藥大卒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朴閔泰 72년 工大卒  
姜智遠 72년 文理大卒  
愼重大 72년 法大卒  
具滋弘 72년 商大卒  
金東根 73년 農大卒  
安吉龍 73년 法大卒  
李英德 73년 法大卒  
申洵雨 74년 行大院卒  
文大源 75년 商大卒  
金河俊 77년 師大卒  
裴奇雲 78년 法大卒  
朴春培 79년 環大院卒  
柳一鎬 81년 社會大卒  
李重根 5기 최고경영  
자과정  
尹泳煥 6기 최고경영  
자과정  
姜聖模 17기 최고경영  
자과정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동문 2名  
큰 힘이 되었습니다  
金南龍 57년 農大卒  
李煥 69년 商大卒  
金權湜 70년 工大卒  
徐玉植 73년 文理大卒

등산대회사

母校 Campus를 거쳐 冠岳山을 넘어 오는 氣分이 어떠하십니까?

바야흐로 때는 天高馬肥의 季節, 하루하루 물들어 가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今年는 世界 文學의 最高峰이라고 하는 文豪 John Wolfgang Von Goethe의 탄생 250주년인 되는 해입니다. Goethe는 自然속에서 어떠한 아름다움도 發見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아름다운 自然속에서 同門들과 젊은 날의 氣分을 살려 浩然之氣를 滿喫하여 마음의 富者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大人이 가는 길, 가야할 길은 선비의 길입니다. 世上이 아무리 어렵고 어지럽고 각박하더라도 무엇에든 현혹 당하지 말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勇氣를 가지고 氣魄있게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이처럼 뜻있는 行事에 同參해주신 李基俊 總長, Green-Scout의 吳明 總裁께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友情어린 物品을 꾸집하게 보내주신 同門들께도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行事를 始終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데 재치와 웃음을 주실 蔡賢九 同門과 金眞卿 양께도 感謝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大人 가족 여러분!

오늘의 登山大會에서 心身의 疲勞를 풀고 心機一轉來日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동문간에 友誼도 한층 돈독하게 해서 母校 發展에 힘있는 同窓 한 몫 감당할 수 있는 同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大人이여! 부디 健勝하시라. 感謝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 동정

### 수상

-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 = 지난 10월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섬유미술을 해외에 알린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받음.
- ▲李康洙(56년 文理大卒·한양대 명예교수) = 최근 정년퇴임을 기념해 출간한 「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나남출판사刊)으로 한국언론학회가 수여하는 「희관언론상」을 받음.
- ▲蔡永福(59년 文理大卒·기초

- 기술연구회 이사장) = 지난 9월 30일 (사)청권사(전주 이씨 孝寧대군과 종회)가 수여하는 제2회 「효령상(언론부문)」을 받음.
- ▲金大中(63년 法大卒·조선일보 주필) = 지난 9월 30일 (사)청권사(전주 이씨 孝寧대군과 종회)가 수여하는 제2회 「효령상(언론부문)」을 받음.
- ▲孫蓮秀(63년 師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난 8월 31일 하얏트호텔에서 동성제약(회장 李善珪)이 주관하는 제2회 「李善珪 약학상(특별상 부문)」을 받음.
- ▲李世馥(65년 法大卒·나드리 화장품 대표) = 지난 10월 8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가 주관한 「남녀 고용평등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 ▲葛政雄(72년 商大卒·대림정보통신 대표) = 지난 10월 7일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제1회 지식경영대상에 서 「최고경영자상」을 받음.
- ▲黃禹錫(77년 獸醫大卒·모교 교수) = 지난 10월 2일 서울 농협중앙회 근화관에서 교보생명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대산농촌문화상(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을 받음.
- ▲金大起(77년 藥大卒·SK케미칼 중앙연구소 생명과학 연구실장) = 지난 9월 15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8회 「다산기술대상」을 받음.
- ▲張慶作(33기 AMP·웨스턴조선비치호텔 사장) = 지난 9월 11일 한국호텔경영학회가 선정한 「99호텔경영대상」을 받음.

### 이동·선임

- ▲李元淳(49년 師大卒·前국사편찬위원장·모교 명예교수) = 최근 재단법인 韓國敎會史研究所 고문에 추대됨.
- ▲李康煥(58년 法大卒·생명보험협회장) = 지난 10월 25일 대한생명 대표이사에 내정됨.
- ▲賁在桓(63년 法大卒·前사법연수원장) =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에 위촉됨.
- ▲李濟薰(64년 文理大卒·중앙

## 「보건대상」 학술·공로부문 수상

李容旭·金秀哲 동문



李容旭



金秀哲

대한보건협회(회장 李晟雨·59년 醫大卒)는 지난 10월 15일 모교 보대원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제13회 보건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학술부문에 모교 보대원 李容旭(61년 獸醫大卒·66년 保大院卒)교수, 공로부문에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의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李교수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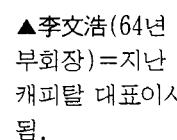
국유산균연구회를 창립,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산균에 대한 학술연구와 산학협동에 공헌했다.

金원장은 대한보건협회 이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이사, 대한보건협회 부산·경남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부산지역 3개 의과대학에서 대우교수로 재직하면서 후배양성에 힘써왔다.

〈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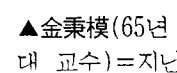
일보 부사장·新大院同窓會長) = 지난 10월 26일 중앙일보 편집인에 선임됨.



▲李文浩(64년 法大卒·LG화재 부회장) = 지난 10월 25일 LG캐피탈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됨.



▲崔相泰(64년 商大卒·한국일보 광고본부장) = 지난 9월 4일 한국일보 상무이사에 선임됨.



▲金秉模(65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 = 지난 10월 26일 문

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2000년 개교) 교장에 임명됨.

▲尹成泰(65년 法大卒·의료보험연합회 회장) = 지난 10월 1일 의료보험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연임됨.

▲朴聖炫(68년 工大卒·모교 교수) = 지난 10월 8일 한국품질경영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權寄正(68년 商大卒·교보증권 이사회 의장) = 지난 10월 25일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내정됨.

〈9면에 계속〉

## 2천년 설계, 포켓용 DIARY에 하십시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2천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8면에 이어)

▲李秀一(70년 法大卒·감사원 감사위원)=지난 10월 25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0월 26일 중앙일보 회장에 추대됨.

▲鄭輝泳(73년 農大卒·감사원 교육원장)=지난 10월 25일 감사원 사무차장에 임명됨.

▲鄭榮助(73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지난 9월 22일 駐방글라데시 대사에 임명됨.

▲黃健豪(74년 商大卒·대우증권 부사장)=최근 한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黃泰仁(75년 工大卒·성미전자 전무)=지난 10월 1일 동양시스템하우스(주) 대표이사에 선임됨.



▲朴時龍(75년 農大卒·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10월 19일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겸 정경부장에 선임됨.



▲金秀敬(77년 自然大卒·조흥은행 김포공합출장소장)=지난 10월 9일 조흥은행 도화동 지점에 선임됨.

## 행사·출간

▲李姬鎬(50년 師大卒·대통령 부인)=지난 10월 2일 부산 동아대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학위(사회학 부문)를 받음.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本報 論說委員)=일본 동경대학원에 유학중이던 차남 孫煜씨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동경에 다녀왔다. 孫煜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硼硅酸鹽유리의 熱水환경에서의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라고 한다. 孫煜씨는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앞으로 동경대에서 「포스트·닥」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0월 22일 하얏트호텔에서 교육부 金德中 장관을 초청, 제80회 정책토론회를 가



집.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 문학인 회 회장)=지난 9월 15일 한국야쿠르트회에서 여성 문학인회 회원 1백여명과 시인 趙炳華등이 특별찬조한 「문인 詩書畫 부채전시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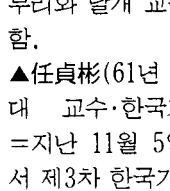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 학장·한국전 문대교육협의 회장·本會 常任 副會長)=지난 10월 4일 조선호텔과 7일 부산정보대학에서 스코틀랜드 전문대학장 등을 초청해 「스코틀랜드 직업교육」 세미나를 개최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오성연구소 이사장)=지난 10월 13일 세계 대학총장회의에 참석해 「평화교육」에 대해 발표했으며, 10월 27일 워싱턴 교포모임에서 「선비정신과 부리와 날개 교육」에 대해 특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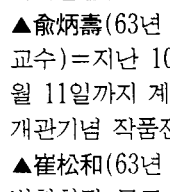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양대 교수·한국가족경영학회 회장)=지난 11월 5일 한양대학교에서 제3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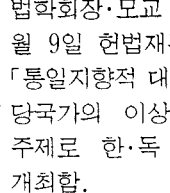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대 교수)=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 인사갤러리에서 제3회 염색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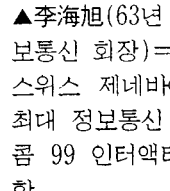
▲俞炳壽(63년 美大卒·계명대 교수)=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계명대 극재미술관 개관기념 작품전을 가짐.



▲崔松和(63년 法大卒·한국공법학회 회장·모교 교수)=지난 10월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통일지향적 대의민주주의와 정당국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李海旭(63년 商大卒·한화정보통신 회장)=지난 10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텔레콤 99 인터랙티브 99」에 참석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10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과 환경 성능 인증제도(그린빌딩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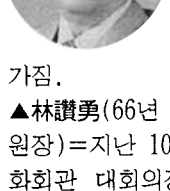
▲李龍男(64년 文理大卒·명지대 인문대학장)=지난 10월 20

일 북경대 한국학연구소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함.

▲金文元(65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재단 이사장)=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과 여·야 3당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치개혁토론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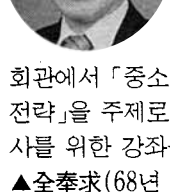
▲李鍾國(65년 音大卒·한국교원대 교수)=지난 11월 11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회갑 기념음악회를 가짐.



▲林讚勇(66년 齒大卒·치과의원장)=지난 10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 문자 「참글」 발명 발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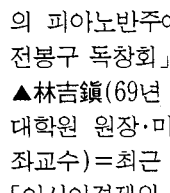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 인사관리자협회 회장·한국로프랑로라(주) 수석부사장)=지난 10월 15일 건축사 회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경영·기술 지도사를 위한 강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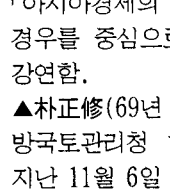
▲全奉求(68년 音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1월 2일 연강홀에서 林憲媛(68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등문의 피아노반주에 맞춰 「바리톤 전봉구 독창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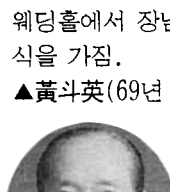
▲林吉鎮(69년 工大卒·KDI정책대학원 원장·미시건 주립대 석좌교수)=최근 북경대학에서 「아시아경제의 재구조화—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에 대해 특별강연함.



▲朴正修(69년 農大卒·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지난 11월 6일 대전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장남 지욱군의 결혼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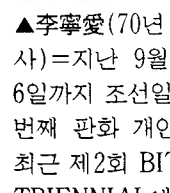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 새마을금고 회장)=지난 10월 7일 동창회관 4층에서 제11회 한국새마을금고 학회 정기총회 및 제8회 「근검·절약 실천토론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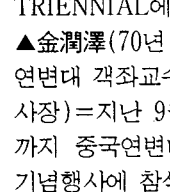
▲李寧愛(70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8번째 관화 개인전을 갖는 한편 최근 제2회 BITOLA 국제 관화 TRIENNIAL에서 대상을 받음.



▲金潤澤(70년 經大院卒·중국 연변대 객좌교수·양천장학회 이사장)=지난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연변대학 창립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1차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함.



▲鄭東泳(79년 人文大卒·국회

의원)=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동산에서 「정동영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全孝順(79년 美大卒)=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닥 종이를 이용한 전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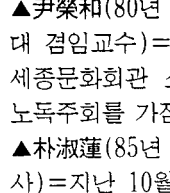
▲韓蕙慶(79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10월 22일 동송동 세미화랑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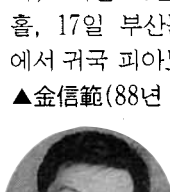
▲裴鍾雨(79년 音大卒·성악가·성음회 회원)=지난 10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Francis Poulenc 탄생 1백주년 기념 「빨랑크 가곡의 밤」 독창회를 가짐.



▲尹榮和(80년 音大卒·가톨릭대 겸임교수)=지난 10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朴淑蓮(85년 音大卒·모교 강사)=지난 10월 14일 호암아트홀,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귀국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金信範(88년 音大卒·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강사)=지난 11월 1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김신범 귀국 첼로 독주회」를 가짐.



##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성민 군(97년 自然大卒)·강정숙 양=11월 20일 12시30분

\*박준선 군(94년 人文大卒)·최효원 양=11월 20일 14시

\*황규옥 군(98년 自然大卒)·김효선 양=11월 21일 12시30분

\*민병훈 군(85년 工大卒)·고심미 양=11월 22일 12시30분

\*김홍식 군(88년 農大卒)·류재영 양=11월 22일 14시

\*정성운 군(92년 自然大卒)·이중희 양=11월 27일 14시

\*김지훈 군(95년 大學院卒)·김영아 양=11월 27일 15시30분

\*김현철(사진) 군(96년



農大卒)·이현주 양=11월 28일 12시30분

\*최상목 군(89년 社會大卒)·이미정 양=12월 4일 12시30분

\*조현진 군(95년 獸醫大卒)·김진희 양=12월 4일 14시

\*김재명 군(99년 師大卒)·이은주 양=12월 4일 15시30분

\*류지영 군(98년 自然大卒)·김정화 양=12월 5일 12시30분

\*이심호 군(92년 師大卒)·서성미 양=12월 5일 14시

\*류선우 군·김현진(94년 師大卒) 양=12월 11일 11시

\*조창현 군(90년 社會大卒)·공현주 양=12월 11일 12시30분

\*박재영 군(94년 自然大卒)·조인옥 양=12월 11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항은 하얀드레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11회 중앙언론문화상 수상

閔丙峻·朴紀正·金榮希동문



閔丙峻



朴紀正



金榮希

지난 10월 11일 중앙대학교 개교 제81주년 기념식에서 거행된 제11회 중앙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신문·방송·광고·출판부문 등 4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을 서울대인이 차지했다.

광고부문을 수상한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 회장·本會 副會長)동문은 ABC제도의 정착, 세계광고주연맹의 한국 유치, 아시아광고주포럼 추진 등의 업적을, 신문부문을 수상한 朴紀正(68년 文理大卒·동아일보

편집국장)동문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집중 추적하는 기자로서 우리나라 신문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것을 인정받았다.

한편 방송부문에 선정된 金榮希(87년 師大卒·MBC예능국 차장)동문은 문화방송「칭찬합시다」연출을 맡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긍정적 국민의식을 확산시키고 한국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變)

## 金大中대통령, 吳應瑞동문 집에 추석 맞은 실향민 서러움 달래



좌로부터 李姬鎬여사, 金大中대통령, 吳應瑞동문.

지난 9월 22일 추석을 앞두고 金大中대통령과 李姬鎬(50년 師大卒)여사가 실향민을 대표하여 吳應瑞(47년 齒

大卒·국제환경대학원 한국총장)동문의 여의도 집을 직접 방문,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었다.



국립특수교육원 朴慶淑 원장

## “학생·교사 비율 3대 1 정도 돼야”

지난 9월 4일 국내 특수교육의 중추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에 朴慶淑(70년 師大卒)동문이 임명됐다. 교육부 소속 첫 여성기관장인 차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국립특수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하는 곳으로 특수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 및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및 운영은.

『크게 연구와 연수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분야는 발달장애연구실, 교육과정연구실, 감각장애연구실, 기획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원 연수는 원내에서 직접하기도 하지만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인 청강학교와 광주, 인천, 제주도, 경주 등 전국 5곳에 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현재 전국의 대학중 14개 대학과 20여곳의 교육대학원에 특수교육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대학교는 달리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4학년 재학시 특수교육을 공부하도록 학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 1백23곳이 현재 운영중이며,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부자유·정서장애 등 5개 영역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다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전엔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교육부내에 유아특수교육과가 마련되는 등 점차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의 비율이 3대1 정도여야 하지만 국내는 아직 6~7명의 학생을 1명의 교사가 맡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특수교육은 완전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달

리 각 학생들의 수준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력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아동들이 모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비해 특수학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의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원내에 연구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다소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할 교육과정개발과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信)

## 특별기고

## ② MIT大 현황

## 동창회가 대학기금 모금 나서

鄭哲圭(52년工大卒)태성고무화학 대표

필자가 지난 6월 15일부터 2주 간에 걸쳐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재미동창회 4개지부를 순방하면서 둘러본 MIT大의 현황을 지난호 「하버드大 현황」에 이어 게재한다.

MIT는 William Barton Rogers에 의해 1865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이념은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와 실재주의를 강조하고 실제 세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는데 있다. 대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평가 랭킹에 있어서 기계, 전자, 화학, 컴퓨터, 원자핵, 항공,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며, 토목 및 의공학에 있어서 3위, 기타 자연과학, 경제, 경영(MBA과정), 언어 등도 미국 정상을 자랑하고 있다.

MIT는 캠퍼스내에 8천2백명의 가족이 있으며, 9백23명의 교수와 조교, 강사 등 약 1천3백명에 달하는 교육담당 멤버가 있고 연구소, 도서관,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MIT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명의 노벨 수상

자, 4명의 Kyoto Prize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National Medal of Science, 또는 Technology 수상자도 21명에 달한다.

MIT동창회는 1875년 창립되었으며 9만명의 졸업생,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교간의 교류를 돕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봉사단체로 조직되었다. 이 모임은 회원간의 교류, MIT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하는 임원 및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약 4천명의 동창회 자원봉사자가 매년 Class 및 Club officer로서, Educational Council의 멤버로서, MIT관리부의 자원봉사원으로 또는 MIT Corporation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체의 임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동창회에 기금을 기부한 인원수는 3만8백1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금액도 매년 증가되어 98년에는 2천8백7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지정한 동창회 기금의 용도내용은 학생의 경제적 지원 19%, Professorship을 포함한 학문 지원 14%, 학생주택 및 생활비 기타 용도 25%, 비지정용도 42%로

분류되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다.



뒷줄 우로부터 두번째 필자.



## 이제 나의 삶에

## 해방을 선포하며...

成百輝(73년 師大卒·前경실련 여성위원장) 시인

뜨거운 봄 체질인 내게 가을은 눈부심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언뜻 언뜻 차갑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온다. 봄, 여름을 거치며 호흡이 빨랐던 내 가슴도 가을의 속삭임을 들으면 어김없이 가라앉고 제법 쓸쓸함에까지 잠긴다.

높고 청청해지는 하늘만큼 냉정해지고 가슴이 마르는 것은 어쩌면 냉혹한 현실에 목 졸리며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다시 가다듬는 신념 때문일까? 오랫동안 이렇게 천기에 반응하며 나도 모르게 살아온 것을 오십이 되면서 깨닫는다.

자랑스런(!) 50년을 넘기며 드디어 나는 내 삶에 회년(해방의 해)을 선포했다. 모든 것을 신께 맡기고 寤寐不忘 가슴에 타던 불을 꺼냈다. -바람잡이 시인으로 사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심장수술에 비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작업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람은 내면에 죽은 것까지 흔드는 힘이 있기에 나는 거기에 매혹된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생활과 대륙 및 역사에 살살 바람을 일으키는 것... 솔직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바람잡이가 되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구경에 미쳐 날뛰던 신명 때문인지 역마살에 휘감겨 산다. 항상 떠돌며 생각한 것은 모두 제작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거대한 한 몸을 이룬 채 바람에 싸여 지구별과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곳곳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인지 내 글을 읽고 꿈틀대는 가슴을 호소해 오는 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보내는 사람들은 건강한 생명체다. 바람은 실상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불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정치관을 산책하며 파위의 소용돌이를 구경했다. 남성들의 숲

은 영성했다. TV에 비친 남성들만 모인 정치관의 모습은 새까만 파리떼 같이 보였다. 기회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은 속을 태우고 있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정당은 화려한 카메라 렌즈가 비호하고 있었다.

누구 줄에든 찰거머리처럼 붙어 빛을 보려는 족속들이 줄을 이었다. 서울대 출신들은 여기서 번번이 실패했다. 개인의 능력은 인정해도 동창회조차 제대로 없는 서울대라고 수군거렸다. 응집력이 강한 D대 출신들이 머릿수를 자랑했다. 줄서기로 이루어진 여러 갈래의 수직 구조의 끈이 모인 정당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아니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이 죽어 있었다.

21세기 한국 정치관의 새 바람은 결국 여성들이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젊은 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 소중한 딸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건강한 태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바람은 엄마들의 가슴에 불고 있다.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 다리를 놓아가는 엄마들의 행진을 그려본다. 바람은 밤새 죽은 가지를 분지르고 산 가지는 춤을 추게 한다. 새로운 세기를 향해 부는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 있으랴. 한평생 무대를 바라보기만 하던 어머니들의 억눌렀던 가슴에 부는 바람 소리를 누가 바로 들을 수 있는가?



## 「예」치과 박仁出원장

## 자선음악회 열어 언청이 위한 수술비 마련

“8만여 환자 제때 치료 못받게 가슴 아파”

『토순질환(언청이)은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감추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음악회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시민들과 연예인이 동참해주어 매우 기뻐합니다.』

지난 9월 28일 저녁 7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뒤편 야외무대에서 열린 토순질환자 수술기금 마련 자선음악회를 주최한 예치과 원장 박仁出(77년 齒大卒·모교 외래교수)동문은 이번 행사에 예상했던 것보다 두배가 많은 8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차동문이 안면기형인 토순질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치열교정 분야를 공부하고 있을 때 본 미국의 의료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토순질환자가 태어나면 주정부에 등록해 정부에서 치료해주며, 이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센터가 건립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 6백명당 1명꼴로 발생해 선천성 기형 가운데 네 번째로 발생빈도가 높은 토순질환은 성장이 멈추는 20세까지 끊임없이 치료를 해줘야 하지만 현재 입술을 봉합하는 1차 수술비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을 뿐 치조골 수술·교정치료·성장 후 코수술 등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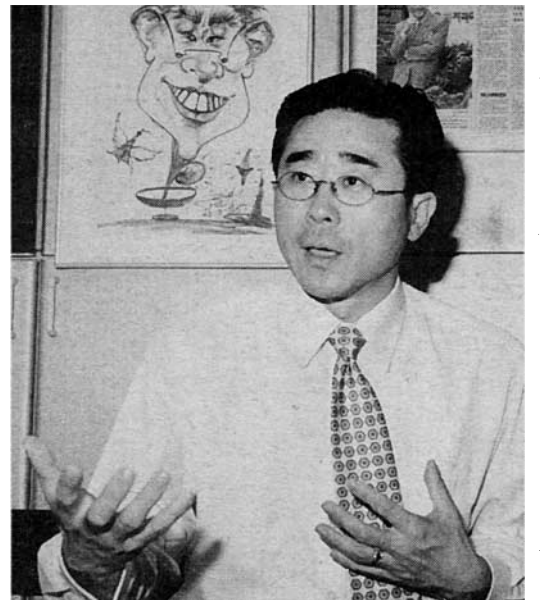
『현재 전국에는 약 8만5천명의 토순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가 비싸서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술기회를 놓치면 뼈와 근육이 뒤틀린 채로 굳어져 정상으로 만들려면 수차례에 걸쳐 수술해야 하고 언어·심리장애 치료도 해야합니다.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거죠.』

차동문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정부와 사회, 국민 모두가 토순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과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임성훈, 영화배우 강수연, 가수 리아·정태춘·박은옥·김창완 등의 연예인이 무료로 출연했으며, 행사 수익금은 토순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가정형편의 환자들의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차동문은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분당, 여의도, 목동, 부산, 제주, 시화, 수지 등 전국 8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치과 네트워크 가족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지난 92년 金石均(77년 齒大卒)·金鍾宇(77년



齒大卒)·吳聖鎭(77년 齒大卒)동문 등과 함께 당시로서는 드물게 공동개원을 한 차동문은 독특한 서비스 정신과 첨단 경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뜻에 동참한 의사들이 전국에 「예치과」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미국 허리우드에도 또 하나의 예치과가 생길 예정이라고 한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그게 바로 나의 길이죠. 저는 언제나 창조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사로서, 사회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토순질환자를 위한 캠프와 의료 벤처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조금은 튀는 치과 의사 차동문에게 또다른 변화를 기대한다.

(美)

## 동문기업 탐방

## ④ 두인전자(주)

## 자체 개발한 음악자판기 「MusiCity」 돌풍예고

동문 14명 합심 1천3백억원 매출목표 세워

자신이 선호하는 노래만을 선별해서 녹음할 수 있는 주문형 카세트테이프인 「뮤직시티(MusiCity)」가 탄생했다. 뮤직시티를 세상에 내놓은 당사자는 국내 영상 멀티미디어 전문업체인 두인전자(주).



음악자판기 「MusiCity」

지난 90년 8월 기술로써 세계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신념아래 출발한 두인전자(주)는 창업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두인전자(주)는 초창기 용역 위주의 사업에서 처음으로 자체 상품인 「TV를 삼킨 컴퓨터-PC 비전」이라는 TV 수신카드를 필두로, 오버레이 보드인 윈도우 비전, 세계 최초의 PC용 DVD 플레이어인 DVD 비전 등을 발표하며 96년 매출 4백20억원을 달성, 유망 벤처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IMF의 거센 한파에 두인전자(주) 역시 직원의 반 이상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어려운 시련을 맞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슬기롭게 대처, 현재 외국 자본의 유치와 코스닥시장에서의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연구 인력의 변함없는 의기 투합과 노력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 분야, 디지털 통신 분야, 디지털 미디어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으로서의 구조 개편을 통해 다가올 2천년대를 두인전자(주) 「제2의 원년」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 분야로는 음악 자판기를 통한 새로운 음악 유통 사업인



金光洙사장



李鍾山관리본부장

「MusiCity」사업과 MPEG II 기술을 이용한 광고 단말기의 운영, 광고 매체 운영 사업인 AdNET 사업을 추진중이다. 앞서 말한 MusiCity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곡을 12배속으로 녹음하여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음악 유통 채널 사업이다. 현재 두인전자(주)는 40분 분량의 음악을 3분 20초에 고속으로 녹음하는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통신 사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위성을 통해 서비스되는 인터넷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위성 모뎀 「SatDEM」과 디지털 방송 신호 실시간 분석 장치인 「Stream Vision」 디지털 방송 기록 및 편성 시스템인 「SDVR 100」 「SDBS 100」 등의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는 기존의 DVD 타이틀의 언어와 자막을 상호 연동

시킬 수 있는 「Interactive DVD」 기능을 특허 출원해 놓고 있어 국내외의 다른 제품과는 기능과 성능 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천년 매출 1천3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인전자(주)에는 현재 金光洙(83년 工大卒)사장을 비롯하여 李鍾山(83년 工大卒)관리본부장, 黃鍾範(83년 工大卒)디지털 사업부장, 劉壽根(84년 工大卒)연구소장, 姜明浩(85년 工大卒)뮤직시티 사업부장, 崔琦昌(85년 工大卒)영업기획팀장, 李晶均(85년 工大卒)·趙容涉(85년 工大卒)연구이사 등 총 14명의 동문이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인전자(주)는 「禮」를 모임의 구심점으로 삼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임직원 모두가 상호간의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새천년의 주역이 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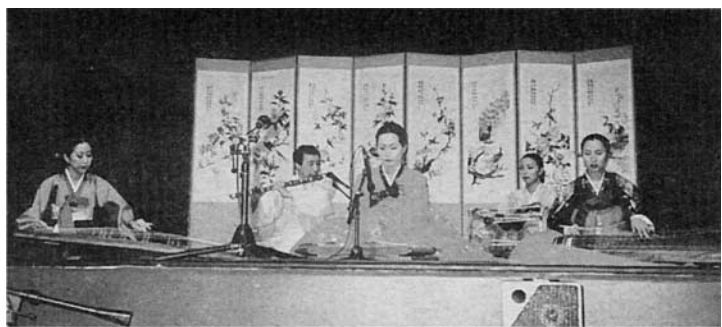
(信)



분당 수내동에 위치한 사옥 전경

## 캐나다 밴쿠버 지부

## 장학기금 마련 국악 공연 가져



캐나다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崔靑一)는 지난 9월 25일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서북미국악원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감독을 맡은 李正愛(87년 音大卒)동문, 국악원장인 洪昌男(88년 音大卒)동문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날 참석한 1천 2백여명의 관객들은 오랫동안

우리 춤과 가락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로써 이민사회 자체의 힘만으로도 훌륭한 전통문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서울관로얄에서는 駐밴쿠버 총영사로 최근 부임한 姜炳一(68년 商大入)동문 환영간담회가 열렸다.

## 약학대학

## 「동창의 날」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제18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흥겨운 체조와 팀별 응원을 시작으로, 모교탐방의 스탬프 랠리, 각 기별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또한 모리야마 회장과 고타께 태즈로 자문위원을 비롯한 在日 「약창회」 회원들이 참석, 韓·日

양국 동문들의 우호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환경대학원

## 모교 후원금 모금 논의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全錫洪)는 지난 9월 30일 롯데호텔에서 「제6회 동창회 조찬모임」을 가졌다.

주요안건 토의시간에는 11월 모교 환경대학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同會가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모교발전 후원금 모금운동」의 현황보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국토연구원 李正植(70년 工大卒)부원장이 특별 연사로 나와, 「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지난 9월 4일 수료식을 마친 환경대학원 고위정책과정 5기 동문들이 참석, 선배들과 상견례를 했다.

## 재미동창회

## 金容學사무총장 선임



재미동창회(회장 吳仁錫)는 최근 임기만료된 李在德사무총장의 후임으로 金容學동문(사진)을 선임했다.

金사무총장은 75년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월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간호대학

## 신축건물 상량식 개최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간호대 강당에서 「졸업 30·4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이곳에서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강당 뒤뜰에 마련된 환영오찬을 시작으로 신축건물 상량식이 이어졌으며, 모교방문기념 학술 세미나와 모교학장 초청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새로운 천년의 희망, 바로 이 사람(단체)이다」라고 생각하는 동문은 주저 없이 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포상하는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에 아래 요령에 따라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 상 부 문 |                                                                  |
|---------|------------------------------------------------------------------|
| 참여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협력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영광상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 부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00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2000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 수의과대학

## 퇴임 교수에게 행운의 열쇠 전달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佑宰)는 지난 10월 2일 모교 수원 캠퍼스 본관 잔디마당에서 「정기총회 겸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자로 정년 퇴임한 모교 李俊燮(58년 獸醫大卒)(사진 右)·成在基(59년 獸醫大卒)교수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한편 2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에서는 동문 노래자랑과 자녀 장기자랑 등 다채

로운 행사와 함께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Zebra」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은 모처럼 청명한 가을 오후를 만끽했다. (美)

## 경영대학원

###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전달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禹德昶)는 지난 9월 9일 모교 경영대학장실에서 9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禹회장을 비롯 모교 경영대학 尹桂燮학과장과 李

東琪학생담당 부학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찬기(국제경영학 전공 2학년)군과 김현아(기업재무 전공 1학년)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전기공학과

### 모교 방문해 바둑·등산대회 열어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金柱琿)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99년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李達雨·徐廷旭·盧茂樹·崔龍一·朴鍾根동문이 공로패를, 26회·39회 동기회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오후에는 동문 바둑대회

를 열었으며, 이어진 자운암 등반 등을 통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연소 등반상과 우수 등반상 시상식을 가진 후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동문 및 가족이 하나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 기계동문회

### 모교에 1천만원 지원

기계동문회(회장 孔大植)는 지난 10월 10일 공대 신공학관 301동 118호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孔회장은 공대 李愚日교수에게 모교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했으며, 咸仁英·明泰鉉·金榮經·張翼龍·崔相弘·金讚煜동문이 모교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가진 임원 개선에서는 孔회장이 참석한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또한 同會는 부회장의 구성을 회장에게 모두 일임키로 했으며, 감사는 유임됐다.

## 최고산업전략과정

### 徐廷旭장관 초청 세미나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八道)는 지난 10월 6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모교 공대 李長茂학장을 비롯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徐廷旭(57년 工大卒)과학기술부 장관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열띤 강연을 했다.

## 금속공학과

### 「금속의 날」행사 성황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容善)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제14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천시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同會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문 테니스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 경일법회

### 權寧星교수에게 기념패 증정



경일법회(회장 李貴昊)는 지난 10월 13일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클럽에서 모교 權寧星교수 정년 퇴임 기념식 및 임사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후학들을 위해 애쓰신 權寧星교수의 노고와 은덕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와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이 동문상호간의 결속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權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준 동문여러분에게 감사하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70년대까지는 동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1~2명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적은 인원일수록 모임을 자주 가져 타동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李회장이 權교수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金基洙동문이 同會를 대표해 權교수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 농공학과

### 후배 16명에게 장학금 수여

농공학과동창회(회장 洪承晚)는 지난 10월 3일 농공관 잔디밭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洪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후배 동문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의 모임이 우

리 농공인의 우애와 친목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 마음을 추스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同會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쓴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모교 재학생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관무골프회

### 제3회 「골프대회」개최

관무골프회(회장 尹炳和)는 지난 10월 13일 용인시 소재의 「레이크힐스」에서 제3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徐廷煥(64년 師大卒·주)테크노랜드 회장) 동문이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沈文圭(75년 文理大卒·글로벌리

## 전자공학과

### 11월 29일 정기총회

전자공학과동창회(회장 李梓旭)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6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887-5222)

아셀무역상사 사장)동문이 행운상을 거머쥘다. (信)

## 두뇌한국21(BK21)사업에 대하여

## 대학원생 적극적인 지원 통해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 이뤄

趙信燮(74년工大卒·모교 통계학과 교수)모교 기획 부실장

금년도 대학사회를 들끓게 하였던 두뇌한국21(BK21)사업이 과학기술분야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학에 대하여 국가가 집중 지원하여 연구력을 높이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현 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내놓은 여러개혁안 중의 하나로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학문영역 중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게 됨으로 BK21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분야 및 소외되는 대학들로부터 불균형 지원이라는 불만과 함께 많은 비난 및 반대를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초기에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참여 대학의 학사과정 정원감축과 대학원 문호개방 및 교수업적을 반영하는 연봉제 도입 등의 교육개혁과 연계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는 인식을 주어 교수사회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BK21사업은 대학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방대학육성 및 대학원전용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MF 긴축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7년간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재원은 연구비가 아니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계약제교수의 인건비에 주로 사용하여야 함으로 과학기

술분야에는 적합하나 인문사회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인문사회분야의 사업은 과학기술분야와는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 12개 사업단 모두 선정

과학기술분야는 정보기술, 의생명, 농생명, 생물, 재료, 화공, 기계, 물리, 화학의 9개 분야 외에 기타분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대학은 위 9개 분야 전부와 기타로 수리과학, 지구환경과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분야에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해외자문단과 국내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는데 우리대학에서는 신청한 12개 사업단이 모두 선정되었다. 12개 사업단중 의생명 이외의 사업단은 다른 대학들과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였으므로 서울대와 연합한 여러 대학에도 지원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선정결과를 놓고 언론에서는 집중 지원한다더니 결국 여러 대학이 나누어 먹기로 귀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선정결과는 집중지원의 명분을 살리면서 여러 대학을 조금씩이나마 지원함으로써 팽배한 불만을 달래는 방책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서울대가 모든 분야에 선정된 것은 미리 내정된 것이며 다른 대학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 참여교수의 하한선을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업단 구성의 기본 틀이 서울대에 유리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K21사업의 근본적인 목표가 각 대학

을 고루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수준의 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임으로 최소한의 크기 규모(critical mass)를 중시하여 제안된 것이며, 서울대학교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학과를 통합하여 교수 소속을 바꾸는 등의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부터 서울대에 맞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분야별로 경쟁률이 2~3대 1 정도 되었고 공개경쟁을 통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단은 2개 사업단을, 정보기술과 생물분야는 3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는데 서울대가 그러한 연구계획심사에서 2~3위 밖으로 밀려나 지원에서 탈락하여야 공정하다고 우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대학이며 이번 심사를 통해 현재 여러 대학 중에서 가장 비교우위에 있음이 입증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인 모두가 BK21 사업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이공계분야의 많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격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하여 함으로 교수 개개인이 연구를 하는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료 구입에 많은 연구비를 할당하여야 하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상당수 교육부 연구지원 프



로그래미 없어지게 됨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여러 대학의 연구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학문후속세대인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과외 등과 같은 연구 이외의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으로 교수개개인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래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일부대학의 반발에 따라 선정계획이 선회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대학에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고, 향후 대학간의 앙금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 모교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대학이 세계 무대에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서울대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이미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학사구조를 개편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현재 결정된 지원을 토대로 하여 지원을 받는 분야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별도의 발전계획을 세워 지원할 예정이란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 모교소식

## 개교 제53주년 기념식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金元福·皮千得 명예교수

### 李基俊총장 “10년 이내 세계 최고·최초 업적 이룰 터”

모교 개교 제53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소강당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모교 尹天柱·李壽成전임총장, 李基俊총장, 宋丙洛부총장, 金基鏞기성회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基俊총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대학의 약 50개 학문분야 중 적어도 30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의 업적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를 앞두고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자처하는 서울대 지성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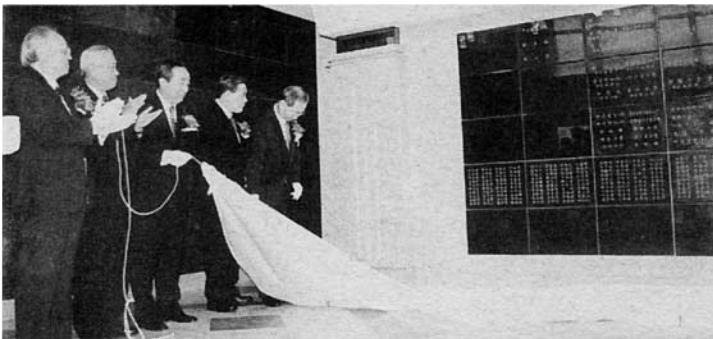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서는 朴東奎(국어국문학과)교수 외 48명이 30년 근속 표창, 權泰億(국사학과)교수 외 93명이 20년 근속 표창, 金永植(교무과)행정주사보 외 56명이 우수공무원 표창

을 받았다.

이어 제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음악대학 기악과 金元福 명예교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皮千得 명예교수를 선정, 증서를 전달했다. <공적사항 19면 참조>

## 발전기금 출연 현판 제막식

### 1천만원 이상 낸 320명 이름 새겨



모교는 지난 10월 6일 관악캠퍼스 본부 본관 로비에서 발전

기금 출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基俊총장, 禹鍾天대학원장, 본회 金在淳회장, 金貞植·孫京植부회장을 비롯해 李禮植약대동창회장, 鄭八道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삼성그룹 李健熙회장, 문화일보 金鎮炫사장, 농협중앙회 李來秀부회장, SKC 崔東一사장, LG석유화학 成在甲회장 등 91년 이후 1천만원 이상의 기금 및 시설물을 출연한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제막한 현판에는 재단법인 관악회, 본회 金在淳회장 등 1천만원 이상 기금 출연자 3백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의류학과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와 앙드레 김 초대 패션쇼가 함께 열려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趙信燮기획부실장 선임 박물관장에 李鍾祥교수

지난 10월 1일자로 본부 기획부실장에 자연대 통계학과 趙信燮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趙부실장은 74년 공대 응용수학과를 졸업, 76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지난 9월 1일자로 박물관장에 미대 동양학과 李鍾祥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李관장은 63년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89년 동국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7년 모교에 부임해 국전초대작가·심사위원, 서울국제미술제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燮>

## 생활과학대학

### 창립 30주년 기념식 성황



생활과학대학(학장 李基榮)은 지난 10월 8일 모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모교방문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李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9년 가정교육과를 모체로 설립된 생활과학대학이 한 세대인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 교육의 산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졸업생의 다양한 활동상을 소개하는 기념 세미나가 열렸으며,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을 위해 어린이집과 생활과학대학 등 캠퍼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金在淳회장 기념 축사 <요지>

존경하는 李基俊 총장과 모교의 교수, 교직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역대 총장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오늘 개교 53주년을 맞는 기쁨과 감회가 새삼스럽습니다. 50여년전 개교하던 그 순간부터 모진 사상의 갈등과 정치적 풍파, 혁명과 전쟁의 참상을 겪었지만 우리들의 창학 정신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은 바래지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청춘을 같이 한 옛 친구-동창들은 인생의 재산입니다. 그 수 20만을 넘고 저마다의 실력으로 국가 요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구촌 어디에 가나 동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개교 53주년을 맞이하는 축전에 즈음하여 온 동문들이 존경과 사모의心を 금치 못하는 두 분 은사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한 것-이 또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琴兒 皮千得 선생님, 雲河 金元福 선생님 그리고 근속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교직원 여러분에게 20만 동문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人氣는 일시, 尊敬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님에 대한 동문 제자들의 존경은 영원할 것입니다.

皮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그 많은 주옥같은 글과 시구 가운데서 ‘이 순간’이란 시를 기억합니다.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흠이 된다 해도 이 순간 내가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해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또 선생님의 ‘晩年’이란 수필 속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지요.

‘하늘의 별을 쳐다 볼 때 내세가 있으면 해 보기도 한다. 신기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해 본다. 그리고 훗날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하고 갔구나’하고 한숨지어 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나는 염치 없는 사람이다.’

모처럼의 개교 기념일에 즈음하여 은사를 기리며 친구들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 후진들의 특권이며 더 없는 즐거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 운위되고 경제의 globalization이나 과학 기술의 진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하여 문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정치 경제는? 문화는? 21세기의 design을 세계의 두뇌들 틈에서 어떻게 그어 갈 것인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자처하는 서울대 지성의 책임은 크고도 무겁습니다.

Elite란 지성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인이 정녕 elite를 자처할진데 관악 Campus는 知的 格闘場이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VERITAS LUX MEA-창학 정신은 우리들을 한데 묶어 줍니다. 조국 앞에 세계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이 순간 별들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갖고 채찍질해가며 서로 도우며 겸손하나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갑시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知的 格闘場이 되어야 한다

## 李基俊총장 기념사 〈요지〉

존경하는 尹天柱, 李壽成 전임총장님, 金在淳총동창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교수·직원 및 학생 여러분!

새로운 세기와 글로벌 시대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된 많은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서울대학교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world class의 comprehensive reserch university)」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첫째, 21세기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가치관,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지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과과정과 학사체계 및 연구시스템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인과 더불어 살고 세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서울대가 배출하는 모든 인재들이 훌륭한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여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캠퍼스의 디지털화, 캠퍼스 생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서울대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사과정의 목표는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핵심, 교양 및 도구 교과 등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는 實事求是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티즌 교육과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성통신을 통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 외국 유학생의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화의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학자를 유치하고, 영어 등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셋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교수진의 확보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사 체계의 정립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교수진의 처우 개선입니다. 교수 승진과

정년보장에 관한 요건도 세계수준에 맞게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과 연구 환경의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캠퍼스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입생 전원이 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밤낮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E-캠퍼스(electronic campus)의 개발, 그리고 서울대인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 고락을 같이 하는 새 캠퍼스 건설에 대한 꿈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는 앞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 그리고 중국연구, 일본연구 및 동아시아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으뜸가는 대학이 되려고 합니다.

여섯째, 앞으로 서울대 학생은 「개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팀 스포츠」에도 상당 수준이 된 다음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각오로 시도하고 있는 이 험난한 서울대의 대변혁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 없이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李基俊

## 제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 음대 기악과 金元福명예교수

### 두오 피아노연주 활성화에 진력



金元福명예교수는 190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이화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35년 경성중앙보육학교 교수로 시작하여 이화여자전문학교를 거쳐 46년부터 모교 음악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73년 정년 퇴임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수많은 피아노 독주회와 인재양성에 힘을 써서 우리나라 여성 피아

니스트의 선구자적인 역할은 물론 음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후학들의 표상이 되는 金교수는 독주회, 실내악, 협연 등 많은 연주회를 가졌으며, 한국 음악계에 끼친 영향과 음악 교육의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훈장(1962년)', '예술원상(1965년)', '문예상(1967년)' 등을 수상하고, '국민훈장 동백장(1973년)'

을 받았다.

金교수는 현재 9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주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특히 정년 이후 한국 '피아노 두오협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을 맡고, 현재 명예회장으로서 10회 이상의 두오 연주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피아노 연주계에 두오 피아노연주를 활성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 사대 영어교육과 皮千得명예교수

### 시·수필 등 한국문학 발전에 공헌

皮千得名예교수는 1934년 중국 상해 호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10월 경성대학 예과 부교수를 시작으로 1974년 8월 퇴임하기까지 만 28년 10개월을 모교에서 봉직하면서 후학양성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6·25전쟁시에 부산의 교사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대학원 학생과장, 연구위원회 위원 및 대학원위원회 위원, 입시위원장을 맡으며 학사행정 발전에 이바지

했다.

1947년 '서정시집'을 필두로 여러 권의 창작시집, 수필집 그리고 번역시집을 내는 등 시와 수필도 한국문학에 큰 공헌을 했으며, 1969년에는 미국의 여러 대학을 순회하면서 한국문학 강의를 통해 한국 문화에 생소했던 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었다.

皮교수는 1970년에 받은 '국민훈장 동백장'이나 이에 더해 1991년에 '은관문화훈장', 그리고 1977년에 수상한 '제1회 한



국 수필문학상' 및 1995년 '제9회 인촌상'은 청빈하게 살아오며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소중히 여긴 선생의 이러한 고결한 인품과 높은 문학적 경지에 대한 사회적 공인인 것이다.

皮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壽則多辱 즉,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욕되는 일이 많다고 했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며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각오』라고 말했다.



문단신

## 新刊

### ■기업 엘리트의

21세기 경제 사회 비전  
—金璟東·林玄鎮·徐二鍾 著



모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金璟東(59년 文理大卒)·林玄鎮(71년 文理大卒)·徐二鍾(84년 社會大卒)교수가 한국의 기업 엘리트들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기업이 24명의 증언을 담아 우리 경제 체제 개혁과 사회 개조의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문화과학지성사刊·값10,000원>

■대학인의 낭만과 도전  
—金致卿 著



충북대 미생물학과 金致卿(64년 師大卒)교수가 20여년간 틈틈이 그때 그때의 사색을 정리한 책. 대학생에 대한 애정, 학문에 대한 열정, 대학 발전에 대한 충정, 과학의 생활화에 대한 열망 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서관刊·값9,000원>

■김구주석의 남북협상과 통일론  
—金祐鎭 著

한국 광복군 동지회 金祐鎭



(AMP 7기) 회장이 백범 金九선생의 남북협상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남북통일론 등을 한 권

의 책에 담았다.

7·4 남북공동성명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고구려刊·값4,500원>

### ■교육

반란이 필요할 때다  
—金勇哲 著



경희대에 출강하고 있는 金勇哲(76년 工大卒·盤索합견축 대표)등문이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기본을 제시한 책을 출간했다. 「하이에나」를 키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맹수교육 즉 전공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백刊·값7,000원>

## 公演

■鄭元順바이올린독주회  
—11월 17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鄭元順(89년 音大卒·상명대 강사)등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비탈리의 사콘느, 쉐베르그와 환타지, 드뷔시의 소나타, 베토벤의 크로이처 Op.47 등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서울예술기획 548-4480)

## 동문의 소리

### 「칭찬합시다」와 어려운 이웃

요즘 인기리에 방송중인 MBC의 「칭찬합시다」는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과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킨다. IMF이후 고통을 함께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인지 큰 반향을 보여 선행의 주인공들과 제작팀이 청와대에 초대되어 격려와 칭찬을 받고 방송대상까지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백혈병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린 생명 앞에 수천만원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단돈 천원을 호소하는 「사랑의 전화」도 종종 방영된다. 이런 방송프로에 선정된 행운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어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불우한 이웃을 개개인의 인정과 자비심에 맡기거나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에 떠넘기고 있

을 것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조). 그런데도 2백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아직까지 의료를 포함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복지문제가 나오면 정부는 으레 재정부족을 탓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와 세계 11대 무역국가로 부상했던 나라가 그렇게도 가난하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들과 그 아들이 챙겨간 수천억원,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이 땀값이나 대가성 없는 성금으로 받아먹은 수억, 수십억원, 재벌들이 빼낸 수백억대의 탈루세액 등은 국민들이 피땀으로 모아놓은 나랏돈이 아니더냐. 국민복지를 위해 값지게 쓰여야 할 재원이 부정



부패의 밑빠진 독으로 술술 새어나갈 때 이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복지선진국 스웨덴이 40년대부터 시작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국민소득 1만달러도 안되던 70년대에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사례를 보아도 이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복지와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뒤늦게나마 국민생활기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겉음마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복지병」을 우려하는 사람은 복지제도 확립이야말로 온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며 제2, 제3의 신창원과 막가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卞光洙(65년 文理大卒)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 음지의 동문에게 관심을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40분쯤, 불행히도 모교에서 실험실 폭발사고가 있는 바로 그 때에 나는 큰 아이의 학교장 추천 입학학을 위한 논술시험에 따라왔다가 우연히도 현장 가까이 서 있었다.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공릉동에서 보낸 학창시절과 조선소에서 힘들게 보냈던 지난 시절들을 떠올리며, 조금은 이른 가을분위기(?)에 잠시 젖어 있다가 혼쫓난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두 명의 대학동기들을 잃었고, 그 이후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결국은 전공을 뒤로하

고 우여곡절 끝에 생소한 분야인 화랑경영을, 그것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에서 8년째 해오고 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NGO활동에도 자연스레 눈을 돌리면서 자칭 「문화시민활동가」라고 이름을 짓고서는 나름대로 몇 년째 활동하고 있다.

어정쩡하다는 475세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 저곳 특히 무대 뒷면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중의 하나는 음지에도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있다는 것이며, 이들을 위해서는 동문상호간의 유대의식이나 적극적인 관



심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우선 내부부터라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최소한 동문중의 한사람으로서의 역할 분담은 하겠다고 다짐하며, 20여년째 허리춤에 차고 있는 졸업 버클을 쓰다듬어 본다. 鄭仁植(78년 工大卒)부산 정인갤러리 대표

### 교실 붕괴를 막으려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데 교육 붕괴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일까? 모든 교육여건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권이 곤두박질치고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교실을 보라」고 했다. 말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정부는 나라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교육예산을 삭감하곤 한다. 이번에도 그랬다. IMF사태를 구실로 교육예산을 대폭 줄이고, 교원들의 정년마저 한꺼번에 5년이나 단축하려했다.



지금처럼 교원들이 교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고 교단에 서기가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고 한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실 붕괴현상을 막으려면 교육예산을 늘리고 교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尹鍾健(73년 敎大院卒)한국외국어대 사법대학장

### 졸업생 재교육 기회 있었으면

꿈 많았던 학창시절을 뒤로한 채, 돈과 인간관계로 어우러진 사회생활을 벗삼아 살아가면서 가끔씩 관악의 품안을 찾아 갈 때면 버들골의 상쾌함과 아크로폴리스의 중후함, 강통식당의 포만감에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추억의 달콤함은 잠시뿐, 금새 이방인이란 느낌 속에 아쉬움이 많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의적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가운데, 떠나온 모교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들에 대한 재교육 프

로그램 활성화로 학교와 졸업생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지속해보면 어떨까? 물론 사회지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의 허리와 다리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사회생활과 병행하며 모교의 대학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졸업생 입장에서 지식과 정신을 재무장하여 新밀레니엄이 가져오는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삶을 재창조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희망을 설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이 적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훨씬 밝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요즘은 어느 시집에서 읽은 「眞光不輝」라는 말에 매료되어 있다. 「진리는 나의 빛」이란 모교의 모토를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빛(眞光)이 되기 위해서 관악의 품속에서 진리를 탐구할 기회까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崔永錫(93년 經營大卒)드림라인(주) 경영기획팀 대리

# 회비납부 술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99년 9월 11일~9월 29일 · 一般: 99년 9월 12일~9월 30일〉

## 회 장 단

▲부회장 李聖秀=50만원  
▲감 사 李基雄=30만원

## 상 임 이 사

▲池憲澤 차대동창회장=20만원

## 이 사

### ◇工科大學

▲고원호<sup>43</sup> ▲권순영<sup>55</sup> ▲김덕재<sup>53</sup> ▲김동철<sup>99</sup>  
▲김병현<sup>60</sup> ▲김생빈<sup>53</sup> ▲김연식<sup>51</sup> ▲김영환<sup>60</sup>  
▲김유재<sup>67</sup> ▲김은영<sup>61</sup> ▲김주홍<sup>51</sup> ▲명계복<sup>60</sup>  
▲백성기<sup>60</sup> ▲서정숙<sup>67</sup> ▲심일보<sup>77</sup> ▲오성근<sup>62</sup>  
▲원정수<sup>67</sup> ▲윤종룡<sup>66</sup> ▲이금석<sup>64</sup> ▲이면우<sup>68</sup>  
▲이범창<sup>66</sup> ▲이상주<sup>63</sup> ▲이승원<sup>47</sup> ▲이종대<sup>63</sup>  
▲이창호<sup>61</sup> ▲임병문<sup>64</sup> ▲전웅진<sup>70</sup> ▲정동진<sup>71</sup>  
▲정영희<sup>66</sup> ▲조규종<sup>50</sup> ▲조래승<sup>60</sup> ▲조병호<sup>69</sup>  
▲조정희<sup>63</sup> ▲최정숙<sup>66</sup> ▲황종구<sup>62</sup>

### ◇農科大學

▲김진팔<sup>62</sup> ▲변종훈<sup>53</sup> ▲유일웅<sup>71</sup> ▲이기명<sup>67</sup>  
▲정구현<sup>67</sup> ▲조용철<sup>48</sup>

### ◇文理科大學

▲고영재<sup>74</sup> ▲김경희<sup>61</sup> ▲김교은<sup>64</sup> ▲김덕룡<sup>61</sup>  
▲김철용<sup>60</sup> ▲박동수<sup>53</sup> ▲오희필<sup>53</sup> ▲이규준<sup>59</sup>  
▲이창수<sup>54</sup> ▲이해찬<sup>72</sup> ▲임상원<sup>62</sup> ▲정병순<sup>62</sup>  
▲진정일<sup>64</sup> ▲홍남표<sup>73</sup> ▲홍치모<sup>55</sup>

### ◇美術大學

▲윤형규<sup>63</sup>

### ◇法科大學

▲강영규<sup>62</sup> ▲구자춘<sup>53</sup> ▲권영훈<sup>53</sup> ▲김 덕<sup>53</sup>  
▲김기인<sup>62</sup> ▲김대진<sup>63</sup> ▲김두배<sup>57</sup> ▲김명운<sup>46</sup>  
▲김상훈<sup>53</sup> ▲김선주<sup>71</sup> ▲김시승<sup>69</sup> ▲김제덕<sup>77</sup>  
▲김재후<sup>57</sup> ▲김정근<sup>53</sup> ▲문화상<sup>68</sup> ▲박종식<sup>42</sup>  
▲박종현<sup>63</sup> ▲박태웅<sup>64</sup> ▲박태준<sup>69</sup> ▲배영길<sup>69</sup>  
▲백덕렬<sup>71</sup> ▲서규택<sup>53</sup> ▲송준재<sup>68</sup> ▲신기남<sup>74</sup>  
▲신동환<sup>62</sup> ▲심태식<sup>51</sup> ▲삼한준<sup>64</sup> ▲오성계<sup>72</sup>  
▲오세희<sup>62</sup> ▲오재세<sup>72</sup> ▲오진환<sup>73</sup> ▲우정권<sup>66</sup>  
▲윤규신<sup>60</sup> ▲윤동민<sup>67</sup> ▲이 원<sup>68</sup> ▲이계천<sup>68</sup>  
▲이신범<sup>68</sup> ▲이재영<sup>62</sup> ▲이종선<sup>60</sup> ▲이효준<sup>63</sup>  
▲장주일<sup>59</sup> ▲전수일<sup>62</sup> ▲정대웅<sup>62</sup> ▲조건호<sup>66</sup>  
▲조동주<sup>57</sup> ▲조승현<sup>72</sup> ▲조일웅<sup>63</sup> ▲진영일<sup>63</sup>  
▲채재덕<sup>61</sup> ▲최명선<sup>63</sup> ▲최석원<sup>55</sup> ▲한승희<sup>61</sup>  
▲홍승환<sup>54</sup>

### ◇師範大學

▲강신주<sup>53</sup> ▲김남조<sup>51</sup> ▲나도승<sup>62</sup> ▲박희문<sup>60</sup>  
▲양금석<sup>53</sup> ▲오민수<sup>66</sup> ▲이유택<sup>63</sup> ▲이종욱<sup>68</sup>  
▲전성택<sup>53</sup> ▲조아남<sup>63</sup>

### ◇商科大學

▲강정구<sup>66</sup> ▲고병우<sup>55</sup> ▲김기중<sup>61</sup> ▲김덕명<sup>66</sup>  
▲김민경<sup>57</sup> ▲김명준<sup>60</sup> ▲김홍은<sup>64</sup> ▲박명식<sup>63</sup>  
▲박인철<sup>63</sup> ▲박찬문<sup>57</sup> ▲백승조<sup>57</sup> ▲서영교<sup>66</sup>  
▲손수일<sup>63</sup> ▲송고선<sup>73</sup> ▲신화철<sup>63</sup> ▲안병국<sup>66</sup>  
▲안태호<sup>63</sup> ▲오창규<sup>65</sup> ▲윤문환<sup>65</sup> ▲이구수<sup>63</sup>  
▲이기용<sup>63</sup> ▲이상익<sup>66</sup> ▲이상철<sup>60</sup> ▲이상학<sup>63</sup>  
▲이순국<sup>63</sup> ▲이승섭<sup>57</sup> ▲이용연<sup>65</sup> ▲이태환<sup>62</sup>  
▲이택섭<sup>55</sup> ▲이필석<sup>55</sup> ▲정인직<sup>64</sup> ▲최명규<sup>49</sup>

▲최성태<sup>66</sup> ▲허 홍<sup>61</sup> ▲허남린<sup>60</sup> ▲황영기<sup>65</sup>

### ◇獸醫科大學

▲김만영<sup>64</sup> ▲박근식<sup>57</sup> ▲조상태<sup>75</sup> ▲최성호<sup>61</sup>

### ◇藥學大學

▲강해석<sup>73</sup> ▲권경곤<sup>60</sup> ▲김인수<sup>53</sup> ▲박승규<sup>60</sup>  
▲임승중<sup>70</sup>

### ◇音樂大學

▲양은희<sup>75</sup> ▲이성재<sup>51</sup>

### ◇醫科大學

▲김성덕<sup>71</sup> ▲김성삼<sup>53</sup> ▲김원경<sup>54</sup> ▲민병철<sup>59</sup>  
▲박대관<sup>61</sup> ▲박영관<sup>61</sup> ▲박상호<sup>53</sup> ▲손기섭<sup>67</sup>  
▲심영보<sup>60</sup> ▲유명철<sup>67</sup> ▲윤근철<sup>79</sup> ▲이상일<sup>73</sup>  
▲이진오<sup>64</sup> ▲이춘식<sup>67</sup> ▲조영희<sup>62</sup> ▲최동수<sup>60</sup>  
▲홍정룡<sup>75</sup>

### ◇齒科大學

▲김병기<sup>67</sup> ▲김영철<sup>67</sup> ▲김한경<sup>66</sup> ▲류재훈<sup>69</sup>  
▲박형운<sup>60</sup> ▲유근원<sup>75</sup> ▲유재석<sup>74</sup> ▲이미대<sup>69</sup>  
▲이병우<sup>62</sup> ▲이종률<sup>66</sup> ▲임철중<sup>67</sup> ▲정상주<sup>62</sup>  
▲최남훈<sup>78</sup> ▲한건웅<sup>67</sup>

### ◇經營大學院

▲장태환<sup>69</sup> ▲전도진<sup>72</sup> ▲황길태<sup>67</sup>

### ◇教育大學院

▲이범국<sup>73</sup>

### ◇保健大學院

▲김미배<sup>78</sup> ▲이시영<sup>70</sup>

### ◇司法大學院

▲이원섭<sup>64</sup>

### ◇新聞大學院

▲안성균<sup>73</sup>

### ◇行政大學院

▲남상우<sup>71</sup> ▲박영환<sup>60</sup> ▲조필수<sup>71</sup> ▲최종문<sup>65</sup>  
▲최종태<sup>66</sup>

## 일 반

### ◇人文大學

▲권태인<sup>73</sup> ▲김선옥<sup>96</sup> ▲김중수<sup>61</sup>  
▲김진형<sup>93</sup> ▲김현일<sup>76</sup> ▲민균홍<sup>68</sup>  
▲민동홍<sup>61</sup> ▲안종홍<sup>95</sup> ▲오보영<sup>78</sup>  
▲이강재<sup>67</sup> ▲이상희<sup>69</sup> ▲이용수<sup>90</sup>  
▲이일환<sup>77</sup> ▲조은래<sup>77</sup> ▲지두환<sup>78</sup>  
▲최용석<sup>93</sup> ▲최홍렬<sup>91</sup> ▲허원영<sup>95</sup>

### ◇社會科學大學

▲강창재<sup>79</sup> ▲고홍석<sup>97</sup> ▲구길모<sup>95</sup>  
▲권기원<sup>96</sup> ▲권동준<sup>95</sup> ▲권순재<sup>93</sup>  
▲김광덕<sup>86</sup> ▲김광순<sup>93</sup> ▲김규일<sup>97</sup>  
▲김기범<sup>85</sup> ▲김상국<sup>79</sup> ▲김승의<sup>95</sup>  
▲김익성<sup>79</sup> ▲김인환<sup>88</sup> ▲김정환<sup>97</sup>  
▲김진호<sup>93</sup> ▲김창영<sup>77</sup> ▲김태범<sup>61</sup>  
▲김태희<sup>97</sup> ▲김홍석<sup>96</sup> ▲김희평<sup>84</sup>  
▲남기욱<sup>96</sup> ▲노창현<sup>93</sup> ▲류상용<sup>92</sup>  
▲민경원<sup>97</sup> ▲박광수<sup>88</sup> ▲박상규<sup>78</sup>  
▲박용해<sup>90</sup> ▲박준식<sup>96</sup> ▲박진오<sup>96</sup>  
▲변동희<sup>77</sup> ▲서종원<sup>61</sup> ▲서종철<sup>88</sup>

▲성낙제<sup>93</sup> ▲손주경<sup>96</sup> ▲송민재<sup>96</sup>  
▲신희창<sup>76</sup> ▲양석운<sup>94</sup> ▲엄경태<sup>97</sup>  
▲엄성호<sup>93</sup> ▲엄재규<sup>93</sup> ▲우성규<sup>89</sup>  
▲위정환<sup>90</sup> ▲유동익<sup>81</sup> ▲유영규<sup>88</sup>  
▲윤원영<sup>88</sup> ▲이건희<sup>77</sup> ▲이동현<sup>86</sup>  
▲이상권<sup>79</sup> ▲이상원<sup>93</sup> ▲이석원<sup>80</sup>  
▲이인재<sup>65</sup> ▲임상룡<sup>95</sup> ▲전성복<sup>96</sup>  
▲정병오<sup>98</sup> ▲조성기<sup>92</sup> ▲조장현<sup>81</sup>  
▲최 인<sup>81</sup> ▲최상규<sup>86</sup> ▲최재혁<sup>97</sup>  
▲최형근<sup>79</sup> ▲하성환<sup>96</sup> ▲하승보<sup>86</sup>  
▲한진수<sup>96</sup> ▲한태원<sup>85</sup> ▲허남수<sup>78</sup>  
▲허동호<sup>89</sup> ▲홍단식<sup>90</sup> ▲홍희준<sup>89</sup>  
▲황기태<sup>96</sup> ▲황선웅<sup>76</sup>

### ◇自然科學大學

▲강경태<sup>99</sup> ▲김동건<sup>86</sup> ▲김명규<sup>89</sup>  
▲김우식<sup>89</sup> ▲김홍선<sup>81</sup> ▲김효중<sup>88</sup>  
▲남기평<sup>79</sup> ▲류성언<sup>84</sup> ▲박동완<sup>77</sup>  
▲박상용<sup>89</sup> ▲박상일<sup>81</sup> ▲백병태<sup>76</sup>  
▲서혁수<sup>97</sup> ▲윤병배<sup>77</sup> ▲이근형<sup>86</sup>  
▲이봉근<sup>82</sup> ▲이성진<sup>87</sup> ▲이순열<sup>83</sup>  
▲이승용<sup>88</sup> ▲이현식<sup>78</sup> ▲정연준<sup>94</sup>  
▲정인범<sup>89</sup> ▲조상욱<sup>88</sup> ▲조유현<sup>88</sup>  
▲조윤희<sup>88</sup> ▲최승언<sup>76</sup> ▲한정택<sup>88</sup>  
▲허 남<sup>86</sup> ▲홍형근<sup>95</sup> ▲황열순<sup>90</sup>

### ◇家政大學

▲권진숙<sup>46</sup> ▲김경미<sup>88</sup> ▲김영희<sup>74</sup>  
▲박순이<sup>74</sup> ▲박영랑<sup>73</sup> ▲박옥금<sup>79</sup>  
▲방남순<sup>74</sup> ▲서복선<sup>74</sup> ▲심수연<sup>85</sup>  
▲안혜준<sup>81</sup> ▲이매리<sup>88</sup> ▲이혜숙<sup>72</sup>  
▲장유경<sup>63</sup> ▲정귀화<sup>84</sup> ▲정진화<sup>83</sup>  
▲정태숙<sup>84</sup> ▲최정미<sup>88</sup>

### ◇看護大學

▲고문희<sup>75</sup> ▲구혜정<sup>79</sup> ▲김선례<sup>86</sup>  
▲김주희<sup>90</sup> ▲김효신<sup>86</sup> ▲남은숙<sup>79</sup>  
▲문명희<sup>82</sup> ▲민복희<sup>53</sup> ▲박계순<sup>87</sup>  
▲박미정<sup>79</sup> ▲박은영<sup>78</sup> ▲박정숙<sup>80</sup>  
▲박혜옥<sup>79</sup> ▲서자원<sup>77</sup> ▲엄옥분<sup>74</sup>  
▲이명선<sup>75</sup> ▲이상미<sup>78</sup> ▲이은희<sup>78</sup>  
▲정 한<sup>79</sup> ▲정영희<sup>78</sup> ▲정임숙<sup>81</sup>  
▲정혜선<sup>81</sup> ▲정희선<sup>73</sup> ▲진현주<sup>57</sup>  
▲채명미<sup>86</sup> ▲최완희<sup>88</sup> ▲허 영<sup>74</sup>

### ◇經營大學

▲강의석<sup>94</sup> ▲구자일<sup>93</sup> ▲권명선<sup>97</sup>  
▲권민용<sup>95</sup> ▲김경덕<sup>87</sup> ▲김경수<sup>82</sup>  
▲김상근<sup>94</sup> ▲김석기<sup>79</sup> ▲김성준<sup>78</sup>  
▲김승모<sup>96</sup> ▲김영현<sup>93</sup> ▲김용선<sup>84</sup>  
▲김원재<sup>89</sup> ▲김유근<sup>79</sup> ▲김태원<sup>95</sup>  
▲김태진<sup>95</sup> ▲노재현<sup>88</sup> ▲마영남<sup>76</sup>  
▲모영철<sup>94</sup> ▲박두원<sup>96</sup> ▲박상건<sup>89</sup>  
▲박성호<sup>83</sup> ▲배영조<sup>95</sup> ▲변동범<sup>95</sup>  
▲변은창<sup>95</sup> ▲성종화<sup>97</sup> ▲손호승<sup>96</sup>  
▲손희경<sup>97</sup> ▲송모현<sup>97</sup> ▲송석환<sup>97</sup>  
▲송요신<sup>80</sup> ▲송진호<sup>95</sup> ▲신승철<sup>95</sup>  
▲안화주<sup>88</sup> ▲양지훈<sup>95</sup> ▲양진호<sup>95</sup>  
▲염신일<sup>97</sup> ▲오선영<sup>87</sup> ▲유 진<sup>86</sup>  
▲유태우<sup>83</sup> ▲이강호<sup>96</sup> ▲이광재<sup>88</sup>  
▲이동호<sup>81</sup> ▲이동훈<sup>92</sup> ▲이명준<sup>90</sup>  
▲이상대<sup>97</sup> ▲이승혁<sup>95</sup> ▲이승훈<sup>93</sup>  
▲이재우<sup>97</sup> ▲이해성<sup>77</sup> ▲이희준<sup>78</sup>  
▲임정수<sup>96</sup> ▲장기룡<sup>81</sup> ▲장영철<sup>80</sup>  
▲정인철<sup>86</sup> ▲조민식<sup>90</sup> ▲조훈재<sup>85</sup>  
▲차승원<sup>97</sup> ▲최무림<sup>95</sup> ▲최병두<sup>78</sup>  
▲최원호<sup>97</sup> ▲허승호<sup>86</sup>

### ◇工科大學

▲강문석<sup>74</sup> ▲강병훈<sup>87</sup> ▲강상윤<sup>70</sup>  
▲강승혁<sup>89</sup> ▲강신운<sup>83</sup> ▲강영수<sup>70</sup>  
▲강우영<sup>92</sup> ▲강운식<sup>85</sup> ▲강희태<sup>64</sup>  
▲고영길<sup>69</sup> ▲고인준<sup>72</sup> ▲고창현<sup>72</sup>  
▲공영식<sup>75</sup> ▲곽덕훈<sup>76</sup> ▲곽희로<sup>67</sup>  
▲구진웅<sup>65</sup> ▲국광호<sup>79</sup> ▲권 웅<sup>91</sup>  
▲권영봉<sup>80</sup> ▲권오중<sup>76</sup> ▲권오현<sup>75</sup>  
▲금낙구<sup>73</sup> ▲김경미<sup>86</sup> ▲김경웅<sup>87</sup>  
▲김광명<sup>62</sup> ▲김광웅<sup>56</sup> ▲김기만<sup>83</sup>  
▲김기만<sup>85</sup> ▲김기석<sup>84</sup> ▲김남영<sup>73</sup>  
▲김남형<sup>87</sup> ▲김대균<sup>68</sup> ▲김덕초<sup>64</sup>  
▲김동주<sup>57</sup> ▲김두훈<sup>82</sup> ▲김방광<sup>66</sup>  
▲김병규<sup>80</sup> ▲김병협<sup>72</sup> ▲김봉균<sup>46</sup>  
▲김석일<sup>75</sup> ▲김석주<sup>78</sup> ▲김선창<sup>48</sup>  
▲김성기<sup>84</sup> ▲김성만<sup>61</sup> ▲김성철<sup>77</sup>  
▲김성철<sup>79</sup> ▲김세기<sup>70</sup> ▲김승웅<sup>84</sup>  
▲김안구<sup>73</sup> ▲김영남<sup>70</sup> ▲김영배<sup>82</sup>  
▲김영인<sup>79</sup> ▲김영인<sup>82</sup> ▲김영재<sup>81</sup>  
▲김영화<sup>63</sup> ▲김용원<sup>78</sup> ▲김용일<sup>86</sup>  
▲김용창<sup>66</sup> ▲김운재<sup>66</sup> ▲김응호<sup>74</sup>  
▲김인식<sup>70</sup> ▲김장주<sup>77</sup> ▲김재복<sup>74</sup>  
▲김정환<sup>78</sup> ▲김종욱<sup>78</sup> ▲김종진<sup>63</sup>  
▲김종호<sup>76</sup> ▲김종환<sup>81</sup> ▲김주일<sup>95</sup>  
▲김준호<sup>79</sup> ▲김지환<sup>56</sup> ▲김진영<sup>63</sup>  
▲김진용<sup>83</sup> ▲김진일<sup>75</sup> ▲김찬식<sup>87</sup>  
▲김찬일<sup>73</sup> ▲김창규<sup>62</sup> ▲김창배<sup>53</sup>  
▲김창호<sup>76</sup> ▲김춘영<sup>58</sup> ▲김충엽<sup>71</sup>  
▲김태훈<sup>70</sup> ▲김학규<sup>76</sup> ▲김학철<sup>74</sup>  
▲김현영<sup>85</sup> ▲김현석<sup>91</sup> ▲김현우<sup>60</sup>  
▲김현우<sup>78</sup> ▲김현태<sup>78</sup> ▲김형기<sup>65</sup>  
▲김형배<sup>89</sup> ▲김호웅<sup>73</sup> ▲김환기<sup>66</sup>  
▲김홍근<sup>80</sup> ▲나장근<sup>93</sup> ▲남치중<sup>84</sup>  
▲문규철<sup>73</sup> ▲문길구<sup>69</sup> ▲문수길<sup>73</sup>  
▲문영환<sup>79</sup> ▲문정삼<sup>57</sup> ▲문홍길<sup>80</sup>  
▲민경훈<sup>93</sup> ▲민병선<sup>60</sup> ▲박경엽<sup>79</sup>  
▲박광덕<sup>54</sup> ▲박광호<sup>77</sup> ▲박동민<sup>63</sup>  
▲박문화<sup>72</sup> ▲박병준<sup>82</sup> ▲박상영<sup>89</sup>  
▲박성대<sup>58</sup> ▲박순구<sup>98</sup> ▲박양수<sup>87</sup>  
▲박영호<sup>72</sup> ▲박영환<sup>84</sup> ▲박용수<sup>87</sup>  
▲박용대<sup>67</sup> ▲박인구<sup>86</sup> ▲박재우<sup>78</sup>  
▲박정래<sup>88</sup> ▲박정문<sup>79</sup> ▲박정석<sup>77</sup>  
▲박종승<sup>85</sup> ▲박종진<sup>83</sup> ▲박종태<sup>65</sup>  
▲박준호<sup>77</sup> ▲박종훈<sup>78</sup> ▲박찬빈<sup>66</sup>  
▲박치선<sup>75</sup> ▲박태권<sup>59</sup> ▲박현빈<sup>70</sup>  
▲배병균<sup>55</sup> ▲배종찬<sup>83</sup> ▲배형식<sup>85</sup>  
▲백남기<sup>53</sup> ▲백덕현<sup>57</sup> ▲백세훈<sup>70</sup>  
▲변창훈<sup>77</sup> ▲부장원<sup>96</sup> ▲서상돈<sup>80</sup>  
▲서선덕<sup>79</sup> ▲서재진<sup>51</sup> ▲서주원<sup>91</sup>  
▲서흥원<sup>91</sup> ▲석영대<sup>60</sup> ▲선병수<sup>85</sup>  
▲성낙준<sup>57</sup> ▲성낙현<sup>75</sup> ▲성대경<sup>81</sup>  
▲성명기<sup>94</sup> ▲소동섭<sup>76</sup> ▲손중권<sup>75</sup>  
▲송대호<sup>72</sup> ▲송우길<sup>84</sup> ▲송운덕<sup>78</sup>  
▲송원철<sup>77</sup> ▲송한섭<sup>55</sup> ▲송효준<sup>97</sup>  
▲신상용<sup>94</sup> ▲신상준<sup>89</sup> ▲신수봉<sup>83</sup>  
▲신재진<sup>85</sup> ▲신희범<sup>79</sup> ▲심재원<sup>71</sup>  
▲안광주<sup>63</sup> ▲안성준<sup>85</sup> ▲안순신<sup>73</sup>  
▲안우성<sup>89</sup> ▲안재영<sup>66</sup> ▲안조영<sup>76</sup>  
▲안희영<sup>82</sup> ▲양 갑<sup>72</sup> ▲양점식<sup>86</sup>  
▲여태승<sup>86</sup> ▲염유신<sup>83</sup> ▲오경수<sup>66</sup>  
▲오명환<sup>65</sup> ▲오상희<sup>92</sup> ▲오승환<sup>87</sup>  
▲오종석<sup>87</sup> ▲옥광민<sup>93</sup> ▲우경호<sup>86</sup>  
▲유건선<sup>77</sup> ▲유승현<sup>91</sup> ▲유준열<sup>83</sup>  
▲유진형<sup>87</sup> ▲윤대근<sup>72</sup> ▲윤용근<sup>85</sup>  
▲윤용수<sup>74</sup> ▲윤재명<sup>70</sup> ▲윤종만<sup>89</sup>  
▲윤주영<sup>87</sup> ▲윤주홍<sup>74</sup> ▲윤필중<sup>89</sup>

▲은광용<sup>65</sup> ▲이강구<sup>69</sup> ▲이건택<sup>69</sup>  
▲이경석<sup>80</sup> ▲이경수<sup>98</sup> ▲이광석<sup>57</sup>  
▲이광수<sup>77</sup> ▲이규준<sup>84</sup> ▲이기호<sup>83</sup>  
▲이낙영<sup>70</sup> ▲이동철<sup>82</sup> ▲이명식<sup>57</sup>  
▲이명환<sup>92</sup> ▲이봉철<sup>58</sup> ▲이상래<sup>88</sup>  
▲이상영<sup>96</sup> ▲이상호<sup>77</sup> ▲이상훈<sup>74</sup>  
▲이석주<sup>66</sup> ▲이성근<sup>80</sup> ▲이성률<sup>72</sup>  
▲이성우<sup>85</sup> ▲이성주<sup>87</sup> ▲이성훈<sup>73</sup>  
▲이소민<sup>98</sup> ▲이수근<sup>88</sup> ▲이수남<sup>73</sup>  
▲이수목<sup>80</sup> ▲이신욱<sup>56</sup> ▲이안부<sup>66</sup>  
▲이양성<sup>53</sup> ▲이영무<sup>78</sup> ▲이용석<sup>73</sup>  
▲이은철<sup>69</sup> ▲이인혁<sup>98</sup> ▲이재근<sup>65</sup>  
▲이재일<sup>70</sup> ▲이정명<sup>64</sup> ▲이정부<sup>66</sup>  
▲이정웅<sup>63</sup> ▲이종수<sup>73</sup> ▲이진열<sup>79</sup>  
▲이찬식<sup>79</sup> ▲이재현<sup>86</sup> ▲이철화<sup>56</sup>  
▲이춘호<sup>74</sup> ▲이태근<sup>78</sup> ▲이태성<sup>61</sup>  
▲이태수<sup>81</sup> ▲이태희<sup>61</sup> ▲이한정<sup>85</sup>  
▲이한진<sup>77</sup> ▲이해균<sup>95</sup> ▲이형수<sup>57</sup>  
▲이형집<sup>85</sup> ▲이환계<sup>76</sup> ▲이환기<sup>75</sup>  
▲이흥재<sup>80</sup> ▲임서환<sup>74</sup> ▲임일택<sup>88</sup>  
▲임채봉<sup>80</sup> ▲임현태<sup>82</sup> ▲장기덕<sup>73</sup>  
▲장동현<sup>87</sup> ▲장병훈<sup>58</sup> ▲장재연<sup>88</sup>  
▲장정오<sup>59</sup> ▲전광병<sup>78</sup> ▲전문휘<sup>57</sup>  
▲전복현<sup>68</sup> ▲정길모<sup>85</sup> ▲정무영<sup>72</sup>  
▲정봉진<sup>67</sup> ▲정수민<sup>74</sup> ▲정연수<sup>73</sup>  
▲정용철<sup>73</sup> ▲정운용<sup>90</sup> ▲정원교<sup>73</sup>  
▲정원무<sup>84</sup> ▲정원배<sup>66</sup> ▲정운영<sup>77</sup>  
▲정진수<sup>61</sup> ▲정택원<sup>79</sup> ▲정필래<sup>75</sup>  
▲정하성<sup>60</sup> ▲정한준<sup>81</sup> ▲조규진<sup>82</sup>  
▲조규화<sup>55</sup> ▲조봉래<sup>81</sup> ▲조영길<sup>71</sup>  
▲조영래<sup>71</sup> ▲조원상<sup>84</sup> ▲조재열<sup>93</sup>  
▲조창환<sup>59</sup> ▲조창현<sup>76</sup> ▲조태홍<sup>78</sup>  
▲조현준<sup>75</sup> ▲주동건<sup>71</sup> ▲주윤성<sup>91</sup>  
▲주인성<sup>81</sup> ▲지태용<sup>55</sup> ▲진금택<sup>76</sup>  
▲진명신<sup>67</sup> ▲진영춘<sup>74</sup> ▲진은석<sup>96</sup>  
▲차동득<sup>73</sup> ▲천운철<sup>81</sup> ▲최 연<sup>72</sup>  
▲최 철<sup>81</sup> ▲최규명<sup>81</sup> ▲최동균<sup>83</sup>  
▲최민규<sup>81</sup> ▲최석환<sup>81</sup> ▲최수길<sup>89</sup>  
▲최수명<sup>78</sup> ▲최영하<sup>88</sup> ▲최완철<sup>77</sup>  
▲최의원<sup>58</sup> ▲최일현<sup>77</sup> ▲최재웅<sup>89</sup>  
▲최재호<sup>84</sup> ▲최찬호<sup>64</sup> ▲최형진<sup>74</sup>  
▲하성호<sup>72</sup> ▲하영철<sup>80</sup> ▲하회두<sup>77</sup>  
▲한경중<sup>82</sup> ▲한기용<sup>89</sup> ▲한동철<sup>69</sup>  
▲한무영<sup>77</sup> ▲한성갑<sup>56</sup> ▲한승환<sup>83</sup>  
▲한필중<sup>86</sup> ▲한형상<sup>82</sup> ▲허환기<sup>91</sup>  
▲현덕훈<sup>82</sup> ▲홍국선<sup>74</sup> ▲홍보기<sup>93</sup>  
▲홍용남<sup>71</sup> ▲홍종재<sup>78</sup> ▲홍현성<sup>72</sup>  
▲황일수<sup>83</sup> ▲황창규

▲안효창<sup>83</sup> ▲양 인<sup>87</sup> ▲오상훈<sup>47</sup>  
▲오성진<sup>96</sup> ▲왕인근<sup>55</sup> ▲우관희<sup>67</sup>  
▲우상원<sup>97</sup> ▲유지성<sup>63</sup> ▲윤용태<sup>89</sup>  
▲윤희석<sup>70</sup> ▲이강훈<sup>78</sup> ▲이근자<sup>67</sup>  
▲이남식<sup>78</sup> ▲이민우<sup>80</sup> ▲이복진<sup>80</sup>  
▲이상범<sup>82</sup> ▲이상인<sup>65</sup> ▲이세웅<sup>79</sup>  
▲이운호<sup>72</sup> ▲이원환<sup>64</sup> ▲이임영<sup>88</sup>  
▲이종록<sup>49</sup> ▲이종호<sup>70</sup> ▲임노현<sup>63</sup>  
▲임상봉<sup>86</sup> ▲임상훈<sup>79</sup> ▲정근우<sup>90</sup>  
▲정문섭<sup>95</sup> ▲정병기<sup>57</sup> ▲정봉구<sup>59</sup>  
▲정성권<sup>96</sup> ▲정대무<sup>73</sup> ▲정희주<sup>68</sup>  
▲조대영<sup>63</sup> ▲조봉환<sup>72</sup> ▲조한옥<sup>57</sup>  
▲조현모<sup>76</sup> ▲조희렬<sup>63</sup> ▲지영숙<sup>63</sup>  
▲차성석<sup>58</sup> ▲최경화<sup>68</sup> ▲최동록<sup>77</sup>  
▲최동인<sup>79</sup> ▲최재복<sup>54</sup> ▲하현팔<sup>75</sup>  
▲한상률<sup>76</sup> ▲한성욱<sup>61</sup> ▲한영태<sup>86</sup>  
▲한판주<sup>60</sup> ▲한해룡<sup>60</sup> ▲허 건<sup>99</sup>  
▲홍성주<sup>97</sup> ▲홍성준<sup>99</sup> ▲홍승진<sup>86</sup>  
▲홍현주<sup>77</sup>

## ◇文理科大學

▲고문환<sup>66</sup> ▲고윤석<sup>54</sup> ▲고인석<sup>60</sup>  
▲곽복록<sup>48</sup> ▲곽중흥<sup>68</sup> ▲권혁정<sup>63</sup>  
▲김경두<sup>75</sup> ▲김규영<sup>42</sup> ▲김동학<sup>57</sup>  
▲김명석<sup>72</sup> ▲김병연<sup>56</sup> ▲김상균<sup>72</sup>  
▲김선기<sup>69</sup> ▲김영국<sup>50</sup> ▲김영수<sup>63</sup>  
▲김윤섭<sup>58</sup> ▲김인철<sup>66</sup> ▲김정욱<sup>59</sup>  
▲김준영<sup>56</sup> ▲김진호<sup>72</sup> ▲김태동<sup>66</sup>

▲김희영<sup>56</sup> ▲남정길<sup>65</sup> ▲문 룡<sup>58</sup>  
▲민경택<sup>63</sup> ▲박순국<sup>63</sup> ▲박용욱<sup>69</sup>  
▲박정국<sup>75</sup> ▲박종렬<sup>71</sup> ▲박동기<sup>50</sup>  
▲북진태<sup>74</sup> ▲서문장<sup>70</sup> ▲성만용<sup>57</sup>  
▲성세열<sup>63</sup> ▲손현래<sup>64</sup> ▲송 민<sup>63</sup>  
▲신동균<sup>63</sup> ▲신동철<sup>65</sup> ▲신재하<sup>60</sup>  
▲신진순<sup>74</sup> ▲신혜사<sup>82</sup> ▲안광운<sup>68</sup>  
▲오태환<sup>65</sup> ▲우삼택<sup>72</sup> ▲우종천<sup>64</sup>  
▲유광석<sup>65</sup> ▲유종하<sup>59</sup> ▲유희정<sup>53</sup>  
▲육보근<sup>61</sup> ▲윤의웅<sup>68</sup> ▲윤희미<sup>65</sup>  
▲이 환<sup>55</sup> ▲이경형<sup>70</sup> ▲이근택<sup>73</sup>  
▲이근호<sup>61</sup> ▲이남식<sup>60</sup> ▲이달용<sup>70</sup>  
▲이백규<sup>72</sup> ▲이봉원<sup>57</sup> ▲이재관<sup>68</sup>  
▲이정수<sup>63</sup> ▲이정숙<sup>57</sup> ▲이정숙<sup>61</sup>  
▲이정순<sup>68</sup> ▲이종록<sup>47</sup> ▲이채락<sup>67</sup>  
▲이현구<sup>65</sup> ▲임인주<sup>63</sup> ▲장문호<sup>72</sup>  
▲장석준<sup>68</sup> ▲정기돈<sup>55</sup> ▲조남홍<sup>62</sup>  
▲조봉래<sup>71</sup> ▲조한무<sup>69</sup> ▲주수길<sup>65</sup>  
▲채기원<sup>59</sup> ▲최석립<sup>70</sup> ▲최수영<sup>71</sup>  
▲최호영<sup>56</sup> ▲하영진<sup>57</sup> ▲한일상<sup>68</sup>  
▲한철순<sup>62</sup> ▲황봉운<sup>62</sup> ▲황정로<sup>61</sup>  
▲황정애<sup>73</sup> ▲황필호<sup>62</sup>

## ◇美術大學

▲강명희<sup>77</sup> ▲김 범<sup>86</sup> ▲김동선<sup>92</sup>  
▲김병국<sup>94</sup> ▲김영태<sup>66</sup> ▲김유선<sup>84</sup>  
▲김춘이<sup>65</sup> ▲나오미<sup>91</sup> ▲박수용<sup>96</sup>  
▲박수현<sup>94</sup> ▲박승호<sup>87</sup> ▲박영애<sup>61</sup>

▲안수경<sup>89</sup> ▲오영희<sup>75</sup> ▲윤명노<sup>60</sup>  
▲이경희<sup>71</sup> ▲이길중<sup>64</sup> ▲이상갑<sup>70</sup>  
▲이성욱<sup>74</sup> ▲이혜인<sup>68</sup> ▲주해준<sup>61</sup>  
▲최병삼<sup>61</sup> ▲최상란<sup>65</sup> ▲최진주<sup>65</sup>

## ◇法科大學

▲강 탁<sup>64</sup> ▲강대형<sup>72</sup> ▲강성목<sup>56</sup>  
▲강양원<sup>67</sup> ▲강태형<sup>61</sup> ▲구남수<sup>85</sup>  
▲권건우<sup>75</sup> ▲김 석<sup>76</sup> ▲김공섭<sup>63</sup>  
▲김교두<sup>72</sup> ▲김기준<sup>69</sup> ▲김상곤<sup>92</sup>  
▲김상준<sup>71</sup> ▲김성근<sup>81</sup> ▲김영철<sup>78</sup>  
▲김유환<sup>82</sup> ▲김을영<sup>65</sup> ▲김의환<sup>65</sup>  
▲김재임<sup>58</sup> ▲김정현<sup>60</sup> ▲김진기<sup>71</sup>  
▲김진병<sup>69</sup> ▲김찬동<sup>57</sup> ▲김창지<sup>60</sup>  
▲김충섭<sup>63</sup> ▲김태병<sup>69</sup> ▲김택환<sup>61</sup>  
▲김홍걸<sup>74</sup> ▲도세경<sup>65</sup> ▲동현철<sup>84</sup>  
▲문병호<sup>70</sup> ▲문호철<sup>88</sup> ▲문효남<sup>78</sup>  
▲민예순<sup>61</sup> ▲박국경<sup>62</sup> ▲박만수<sup>72</sup>  
▲박민표<sup>66</sup> ▲박영식<sup>58</sup> ▲박이규<sup>91</sup>  
▲박익수<sup>85</sup> ▲박재원<sup>61</sup> ▲박정식<sup>56</sup>  
▲박주은<sup>47</sup> ▲박중삼<sup>69</sup> ▲박학림<sup>84</sup>  
▲백영철<sup>72</sup> ▲서동우<sup>85</sup> ▲서현진<sup>64</sup>  
▲성민섭<sup>82</sup> ▲송강호<sup>81</sup> ▲신중대<sup>72</sup>  
▲신필중<sup>68</sup> ▲안병만<sup>64</sup> ▲염원섭<sup>87</sup>  
▲오세빈<sup>72</sup> ▲우양구<sup>74</sup> ▲우진호<sup>85</sup>  
▲유 현<sup>68</sup> ▲유두환<sup>65</sup> ▲유봉수<sup>55</sup>  
▲유재선<sup>67</sup> ▲유제인<sup>72</sup> ▲유창수<sup>72</sup>  
▲윤수길<sup>61</sup> ▲윤용남<sup>64</sup> ▲윤진호<sup>70</sup>  
▲이강명<sup>68</sup> ▲이근일<sup>67</sup> ▲이문수<sup>73</sup>  
▲이상원<sup>67</sup> ▲이성호<sup>82</sup> ▲이용훈<sup>63</sup>  
▲이우근<sup>71</sup> ▲이일현<sup>61</sup> ▲이종호<sup>73</sup>  
▲이진영<sup>64</sup> ▲이창완<sup>69</sup> ▲이태수<sup>89</sup>  
▲이학부<sup>59</sup> ▲이흥훈<sup>69</sup> ▲임병일<sup>84</sup>  
▲임안식<sup>77</sup> ▲임태수<sup>60</sup> ▲임흥근<sup>62</sup>  
▲장원규<sup>80</sup> ▲정명호<sup>80</sup> ▲정문웅<sup>61</sup>  
▲정용달<sup>65</sup> ▲정정검<sup>70</sup> ▲정주택<sup>71</sup>  
▲정진영<sup>84</sup> ▲조대환<sup>80</sup> ▲조승곤<sup>74</sup>  
▲차상필<sup>58</sup> ▲채수열<sup>73</sup> ▲천재욱<sup>56</sup>  
▲최성우<sup>85</sup> ▲최윤중<sup>86</sup> ▲하성대<sup>52</sup>  
▲한준호<sup>72</sup> ▲허만조<sup>68</sup> ▲홍순영<sup>61</sup>  
▲황보중<sup>78</sup>

## ◇師範大學

▲강성주<sup>90</sup> ▲강희희<sup>61</sup> ▲강운선<sup>89</sup>  
▲강일선<sup>72</sup> ▲강점희<sup>30</sup> ▲강철용<sup>76</sup>  
▲강태훈<sup>97</sup> ▲고원영<sup>63</sup> ▲구항모<sup>87</sup>  
▲권 균<sup>65</sup> ▲권용웅<sup>79</sup> ▲김광준<sup>67</sup>  
▲김기준<sup>63</sup> ▲김길순<sup>65</sup> ▲김무홍<sup>64</sup>  
▲김상현<sup>85</sup> ▲김선식<sup>62</sup> ▲김성식<sup>61</sup>  
▲김소례<sup>58</sup> ▲김수형<sup>65</sup> ▲김영수<sup>91</sup>  
▲김영숙<sup>47</sup> ▲김영지<sup>72</sup> ▲김용복<sup>61</sup>  
▲김원배<sup>89</sup> ▲김은수<sup>91</sup> ▲김정욱<sup>83</sup>  
▲김정훈<sup>61</sup> ▲김준호<sup>55</sup> ▲김진성<sup>97</sup>  
▲김진영<sup>89</sup> ▲김진홍<sup>64</sup> ▲김학룡<sup>58</sup>  
▲김형주<sup>56</sup> ▲김후종<sup>51</sup> ▲남궁기<sup>41</sup>  
▲남선민<sup>95</sup> ▲노재유<sup>40</sup> ▲노진영<sup>99</sup>  
▲노희방<sup>77</sup> ▲류명혜<sup>88</sup> ▲목창수<sup>73</sup>  
▲박광채<sup>89</sup> ▲박영배<sup>57</sup> ▲박재동<sup>90</sup>  
▲배은주<sup>90</sup> ▲백린섭<sup>71</sup> ▲서정울<sup>51</sup>  
▲성기종<sup>58</sup> ▲성본섭<sup>66</sup> ▲성철용<sup>60</sup>  
▲손원일<sup>78</sup> ▲신각범<sup>58</sup> ▲신봉희<sup>41</sup>  
▲심영호<sup>70</sup> ▲안성도<sup>65</sup> ▲양태일<sup>63</sup>  
▲유명선<sup>71</sup> ▲유인애<sup>72</sup> ▲유홍주<sup>82</sup>  
▲윤경희<sup>81</sup> ▲윤석영<sup>68</sup> ▲윤성대<sup>71</sup>  
▲윤송자<sup>41</sup> ▲윤숙정<sup>86</sup> ▲윤주화<sup>76</sup>  
▲이경은<sup>91</sup> ▲이경희<sup>41</sup> ▲이계진<sup>79</sup>  
▲이광우<sup>67</sup> ▲이기준<sup>71</sup> ▲이도선<sup>55</sup>  
▲이명로<sup>75</sup> ▲이배희<sup>55</sup> ▲이병룡<sup>70</sup>  
▲이사행<sup>45</sup> ▲이성규<sup>61</sup> ▲이신구<sup>63</sup>  
▲이용덕<sup>71</sup> ▲이윤라<sup>86</sup> ▲이정록<sup>74</sup>  
▲이정진<sup>81</sup> ▲이정태<sup>74</sup> ▲이준희<sup>63</sup>  
▲이종숙<sup>43</sup> ▲이주은<sup>98</sup> ▲이택준<sup>52</sup>  
▲이현주<sup>67</sup> ▲이혜성<sup>80</sup> ▲이흥기<sup>66</sup>  
▲이환희<sup>42</sup> ▲이후영<sup>68</sup> ▲임 언<sup>83</sup>  
▲임문식<sup>61</sup> ▲임철일<sup>86</sup> ▲임충기<sup>78</sup>

▲장명숙<sup>72</sup> ▲전만길<sup>66</sup> ▲정두영<sup>64</sup>  
▲정문용<sup>76</sup> ▲정은실<sup>74</sup> ▲정철기<sup>63</sup>  
▲정철재<sup>80</sup> ▲조규홍<sup>64</sup> ▲조기호<sup>58</sup>  
▲조용훈<sup>66</sup> ▲조인형<sup>64</sup> ▲조초희<sup>72</sup>  
▲지대성<sup>79</sup> ▲채미영<sup>86</sup> ▲최돈형<sup>72</sup>  
▲최명순<sup>58</sup> ▲최영택<sup>63</sup> ▲최정숙<sup>44</sup>  
▲추교환<sup>55</sup> ▲추연화<sup>70</sup> ▲한기선<sup>78</sup>  
▲한성동<sup>59</sup> ▲한영희<sup>65</sup> ▲함오연<sup>74</sup>  
▲허남균<sup>79</sup> ▲허창일<sup>75</sup> ▲허혜경<sup>69</sup>  
▲홍길표<sup>73</sup> ▲홍성화<sup>63</sup> ▲홍성훈<sup>52</sup>  
▲홍은경<sup>58</sup> ▲홍인기<sup>58</sup> ▲황운연<sup>54</sup>  
▲황재근<sup>61</sup> ▲황진한<sup>46</sup>

## ◇商科大學

▲강 영<sup>71</sup> ▲강신필<sup>62</sup> ▲강신용<sup>62</sup>  
▲강재경<sup>61</sup> ▲강종만<sup>75</sup> ▲공운구<sup>69</sup>  
▲곽대운<sup>72</sup> ▲권대욱<sup>48</sup> ▲권영달<sup>55</sup>  
▲김기철<sup>72</sup> ▲김성호<sup>71</sup> ▲김영래<sup>68</sup>  
▲김영빈<sup>72</sup> ▲김제심<sup>56</sup> ▲김태구<sup>63</sup>  
▲김형진<sup>66</sup> ▲김호식<sup>73</sup> ▲문현상<sup>65</sup>  
▲박노철<sup>60</sup> ▲박인태<sup>57</sup> ▲박찬신<sup>66</sup>  
▲박찬홍<sup>56</sup> ▲박태호<sup>75</sup> ▲배지철<sup>57</sup>  
▲백양기<sup>74</sup> ▲백용기<sup>58</sup> ▲서병익<sup>65</sup>  
▲성용환<sup>63</sup> ▲손태일<sup>72</sup> ▲안일성<sup>64</sup>  
▲오수길<sup>67</sup> ▲오연근<sup>70</sup> ▲윤재우<sup>65</sup>  
▲윤진식<sup>66</sup> ▲이 단<sup>69</sup> ▲이국희<sup>62</sup>  
▲이기용<sup>72</sup> ▲이기철<sup>61</sup> ▲이길호<sup>59</sup>  
▲이동훈<sup>59</sup> ▲이문범<sup>64</sup> ▲이병대<sup>65</sup>  
▲이봉길<sup>62</sup> ▲이성재<sup>57</sup> ▲이수신<sup>70</sup>  
▲이승호<sup>62</sup> ▲이영준<sup>75</sup> ▲이용기<sup>65</sup>  
▲이장원<sup>68</sup> ▲이재국<sup>65</sup> ▲이재원<sup>65</sup>  
▲이종오<sup>56</sup> ▲이진무<sup>65</sup> ▲이창희<sup>75</sup>  
▲이흥준<sup>62</sup> ▲장광명<sup>64</sup> ▲장덕원<sup>70</sup>  
▲전경만<sup>74</sup> ▲정승희<sup>66</sup> ▲정장식<sup>73</sup>  
▲정태욱<sup>69</sup> ▲조봉래<sup>67</sup> ▲지현균<sup>64</sup>  
▲최창걸<sup>64</sup> ▲탁승호<sup>72</sup> ▲한 환<sup>56</sup>  
▲한승희<sup>66</sup> ▲현해수<sup>63</sup> ▲홍건식<sup>58</sup>  
▲홍구희<sup>61</sup>

## ◇獸醫科大學

▲김본원<sup>67</sup> ▲김영만<sup>62</sup> ▲김진택<sup>97</sup>  
▲김태원<sup>64</sup> ▲남궁선<sup>61</sup> ▲민호식<sup>53</sup>  
▲박희춘<sup>70</sup> ▲송회락<sup>74</sup> ▲엄기선<sup>79</sup>  
▲여운돈<sup>75</sup> ▲이성준<sup>88</sup> ▲이양호<sup>84</sup>  
▲이원우<sup>71</sup> ▲이용준<sup>89</sup> ▲이한일<sup>66</sup>  
▲장광호<sup>85</sup> ▲장재홍<sup>63</sup> ▲전원표<sup>63</sup>  
▲정삼희<sup>94</sup> ▲최수호<sup>79</sup> ▲홍순일<sup>85</sup>  
▲황병주<sup>57</sup> ▲황우석<sup>77</sup>

## ◇藥學大學

▲강희경<sup>88</sup> ▲김대렬<sup>57</sup> ▲김박광<sup>65</sup>  
▲김영광<sup>76</sup> ▲김옥경<sup>87</sup> ▲김홍숙<sup>77</sup>  
▲남정원<sup>89</sup> ▲문창술<sup>61</sup> ▲박경욱<sup>56</sup>  
▲박기숙<sup>90</sup> ▲박용춘<sup>55</sup> ▲백덕우<sup>57</sup>  
▲이성구<sup>77</sup> ▲이순효<sup>81</sup> ▲이우영<sup>78</sup>  
▲이진욱<sup>71</sup> ▲장봉수<sup>65</sup> ▲정 용<sup>65</sup>  
▲정신희<sup>71</sup> ▲정희경<sup>88</sup> ▲최형식<sup>76</sup>  
▲한한길<sup>67</sup>

## ◇音樂大學

▲김경희<sup>86</sup> ▲김선희<sup>85</sup> ▲김영목<sup>81</sup>  
▲남명화<sup>82</sup> ▲배은경<sup>89</sup> ▲설경아<sup>81</sup>  
▲오광호<sup>74</sup> ▲유지혜<sup>85</sup> ▲이건희<sup>86</sup>  
▲이문경<sup>74</sup> ▲이방실<sup>96</sup> ▲이수경<sup>88</sup>  
▲이숙영<sup>84</sup> ▲이승혜<sup>96</sup> ▲이영희<sup>77</sup>  
▲이영자<sup>59</sup> ▲이용훈<sup>98</sup> ▲임정희<sup>86</sup>  
▲정미연<sup>81</sup> ▲정미현<sup>90</sup> ▲정태봉<sup>80</sup>  
▲조윤경<sup>95</sup> ▲주현정<sup>96</sup> ▲지은혜<sup>91</sup>  
▲최경혜<sup>68</sup> ▲한정혜<sup>87</sup> ▲황병훈<sup>75</sup>

## ◇醫科大學

▲강승주<sup>84</sup> ▲김경일<sup>82</sup> ▲김은주<sup>88</sup>  
▲김주성<sup>87</sup> ▲김준열<sup>82</sup> ▲박양희<sup>76</sup>  
▲백승운<sup>82</sup> ▲서정범<sup>54</sup> ▲서정욱<sup>80</sup>  
▲성숙환<sup>78</sup> ▲안한준<sup>82</sup> ▲양석진<sup>85</sup>

▲오석환<sup>51</sup> ▲오성태<sup>84</sup> ▲오세오<sup>85</sup>  
▲위원량<sup>80</sup> ▲유정현<sup>66</sup> ▲유희구<sup>75</sup>  
▲이강욱<sup>89</sup> ▲이강진<sup>80</sup> ▲이문규<sup>81</sup>  
▲이미나<sup>62</sup> ▲이석환<sup>59</sup> ▲이영철<sup>83</sup>  
▲이원로<sup>62</sup> ▲이홍균<sup>63</sup> ▲장자준<sup>77</sup>  
▲전동수<sup>50</sup> ▲정구현<sup>50</sup> ▲정재면<sup>89</sup>  
▲정희국<sup>84</sup> ▲조효남<sup>84</sup> ▲최성준<sup>78</sup>  
▲최수경<sup>83</sup> ▲최창운<sup>84</sup> ▲최현규<sup>58</sup>  
▲한석상<sup>58</sup> ▲한영미<sup>81</sup> ▲한형주<sup>52</sup>  
▲홍성화<sup>84</sup> ▲홍성훈<sup>67</sup> ▲홍수종<sup>84</sup>  
▲홍순기<sup>84</sup>

## ◇齒科大學

▲김공배<sup>62</sup> ▲김규진<sup>81</sup> ▲김기혁<sup>50</sup>  
▲김기홍<sup>81</sup> ▲김두현<sup>65</sup> ▲김명기<sup>77</sup>  
▲김본수<sup>84</sup> ▲김성주<sup>87</sup> ▲김용선<sup>47</sup>  
▲김중수<sup>72</sup> ▲김진수<sup>76</sup> ▲김충호<sup>81</sup>  
▲김형배<sup>84</sup> ▲박원배<sup>55</sup> ▲박재간<sup>85</sup>  
▲박대수<sup>71</sup> ▲배진척<sup>66</sup> ▲손영화<sup>89</sup>  
▲신일영<sup>83</sup> ▲염인용<sup>84</sup> ▲원혜경<sup>80</sup>  
▲이 승<sup>89</sup> ▲이성종<sup>78</sup> ▲이세영<sup>82</sup>  
▲이영덕<sup>87</sup> ▲이영렬<sup>58</sup> ▲이해준<sup>83</sup>  
▲이형구<sup>88</sup> ▲임광수<sup>66</sup> ▲임형순<sup>70</sup>  
▲정규배<sup>61</sup> ▲정국균<sup>51</sup> ▲정평구<sup>62</sup>  
▲조진희<sup>89</sup> ▲진기열<sup>83</sup> ▲최낙준<sup>78</sup>

## ◇大學院

▲강길수<sup>75</sup> ▲권병호<sup>73</sup> ▲김남준<sup>95</sup>  
▲김민환<sup>84</sup> ▲김송득<sup>93</sup> ▲김한중<sup>84</sup>  
▲김홍소<sup>77</sup> ▲박노균<sup>82</sup> ▲박옥출<sup>52</sup>  
▲성기선<sup>88</sup> ▲손명환<sup>80</sup> ▲손용성<sup>96</sup>  
▲심규장<sup>88</sup> ▲안수영<sup>86</sup> ▲이동호<sup>71</sup>  
▲이은기<sup>84</sup> ▲임재남<sup>89</sup> ▲전준수<sup>65</sup>  
▲정원박<sup>61</sup> ▲조서규<sup>85</sup> ▲조석훈<sup>91</sup>  
▲지제근<sup>64</sup> ▲지충수<sup>77</sup> ▲최원희<sup>85</sup>  
▲표내숙<sup>87</sup> ▲한찬욱<sup>87</sup>

## ◇經營大學院

▲김용범<sup>71</sup> ▲유태현<sup>75</sup> ▲최규담<sup>93</sup>  
▲최형근<sup>94</sup>

## ◇教育大學院

▲우정남<sup>75</sup> ▲이원국<sup>70</sup>

## ◇保健大學院

▲오장수<sup>91</sup> ▲이상훈<sup>82</sup> ▲이종현<sup>68</sup>

## ◇新聞大學院

▲곽소진<sup>70</sup> ▲윤임술<sup>69</sup> ▲최영일<sup>75</sup>

## ◇行政大學院

▲박찬도<sup>66</sup> ▲반금환<sup>70</sup> ▲유상철<sup>72</sup>  
▲이광중<sup>70</sup> ▲이형기<sup>70</sup> ▲장만철<sup>88</sup>  
▲전운기<sup>84</sup> ▲정재춘<sup>73</sup> ▲최영환<sup>67</sup>  
▲최재범<sup>77</sup>

## ◇環境大學院

▲강병수<sup>84</sup> ▲김경대<sup>85</sup> ▲김선태<sup>88</sup>  
▲김정호<sup>78</sup> ▲김태경<sup>87</sup> ▲박상락<sup>88</sup>  
▲박학목<sup>84</sup> ▲신규식<sup>92</sup> ▲이필수<sup>77</sup>  
▲임상신<sup>97</sup> ▲정양희<sup>82</sup> ▲차영두<sup>97</sup>

##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순희<sup>3</sup> ▲김종숙<sup>4</sup> ▲배옥남<sup>3</sup>  
▲심정희<sup>2</sup>

##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9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 인

## ◇人文大學

▲안상욱<sup>96</sup> ▲정민영<sup>89</sup>

## ◇社會科學大學

▲김형근<sup>86</sup> ▲박정호<sup>87</sup> ▲이세진<sup>94</sup>  
▲이정훈<sup>90</sup> ▲이현석<sup>96</sup> ▲정동현<sup>82</sup>

## ◇自然科學大學

▲이호성<sup>81</sup>

## ◇家政大學

▲조은해<sup>80</sup>

## ◇經營大學

▲박원태<sup>88</sup> ▲유재화<sup>85</sup> ▲이종욱<sup>76</sup>  
▲진보근<sup>94</sup>

## ◇工科大學

▲강금석<sup>96</sup> ▲강승일<sup>92</sup> ▲권오철<sup>66</sup>  
▲김광남<sup>96</sup> ▲김정기<sup>95</sup> ▲나형진<sup>96</sup>  
▲노성환<sup>96</sup> ▲박승주<sup>89</sup> ▲박영제<sup>78</sup>  
▲신서원<sup>96</sup> ▲양병춘<sup>95</sup> ▲양진호<sup>96</sup>  
▲엄태윤<sup>85</sup> ▲오익환<sup>61</sup> ▲유찬상<sup>96</sup>  
▲이세규<sup>88</sup> ▲이형승<sup>91</sup> ▲임권택<sup>61</sup>  
▲임동규<sup>95</sup>

## ◇農科大學

▲권종석<sup>84</sup> ▲김보한<sup>79</sup> ▲노현권<sup>95</sup>  
▲장혜수<sup>96</sup> ▲최은순<sup>82</sup>

## ◇文理科大學

▲고은희<sup>72</sup> ▲오혁주<sup>60</sup> ▲장종학<sup>63</sup>

## ◇美術大學

▲윤옥진<sup>68</sup>

## ◇法科大學

▲박상천<sup>62</sup> ▲손주찬<sup>52</sup>

## ◇師範大學

▲소명선<sup>88</sup> ▲전상열<sup>91</sup> ▲최영문<sup>93</sup>

## ◇商科大學

▲민병국<sup>66</sup> ▲이승섭<sup>57</sup>

## ◇獸醫科大學

▲하재환<sup>88</sup>

## ◇藥學大學

▲안순길<sup>80</sup> ▲이지향<sup>99</sup> ▲조남진<sup>75</sup>  
▲현덕성<sup>70</sup>

## ◇齒科大學

▲서정기<sup>66</sup>

## ◇大學院

▲김정은<sup>97</sup> ▲박 훈<sup>61</sup> ▲이송길<sup>98</sup>

## ◇保健大學院

▲오장수<sup>91</sup> ▲이선동<sup>88</sup>

## ◇行政大學院

▲